제주감귤농협, 산지 – 소비지간 상생 발전을 위한마케팅 협의회 개최 – 68p



2024년 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은상 수상 – 75p



제주감귤농협, 2024년 직원 정년퇴임식 개최 – 77p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감귤농협 농정 간담회

11월 5일 4APC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외 도청 간부 공무원 및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간담회를 실시하였다.




















NH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감귤농협과의 농정 간담회
11월 5일(화) 제주감귤농협



목 차

CONTENTS

신년사

조합장 송창구 ····· 6

기고

지구온난화와 감귤재배지 변화
: 문영일 ····· 10

청년농이 만난 사람
: 김주현 ····· 15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 김대운 ····· 21

Q&A

감귤을 수확하여 과실 내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나무에서 탈취되는 양분의 양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외
: 고상욱 ····· 25

표 지



〈오영훈 도지사님과의
농정간담회〉



영농안내

2~3월 노지감귤 주요 관리 요령 : 한영규 … 30
2~3월 하우스감귤 재배 관리요령 : 양지순 … 36
2~3월 만감류 재배관리 요령 : 양철준 …… 43
2~3월 감귤원 병해충 관리 : 김동순 …… 48

토양과 비료 : 현해남 …… 53
양액재배 A, B통 있는 이유
칼슘제와 오복이 혼합 주의!

법률상담

농지법에 대하여 : 백경원 …… 58

세상이 보이는 심리상담실 : 이원후 …… 62

조합소식

조합 및 조합장 주요 동정…… 64
조합소식…… 68











신년사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국제 정세 불안, 경기 침체 및 저성장 기조 지속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상기후로 인한 감귤열매 열과·낙과 피해 발생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지켜내고자 온힘을 다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제주감귤농협을 향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보여주시는 애정은 제주감귤농협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謹賀新年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및 임직원 여러분!

제주감귤농협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조합원님만을 바라보며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실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변화와 혁신, 소통, 화합을 목표로 하여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고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원님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및 영농비용 상승, 농촌인력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영농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익지원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도, 우량묘목의 생산 및 공급,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지유통센터의 유통시설 스마트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 신규 거래처 추진 및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산지유통 전문 인력 육성으로 품목 전문농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로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 손 내미는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신속한 연체 감축 및 여신관리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경영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 및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경쟁력을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직경쟁력 확보의 핵심에는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합원 - 조합원, 조합원 - 직원, 직원 - 직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모두가 제주감귤농협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합으로 하나 되는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제주감귤농협은 2025년 푸른뱀의 해를 맞이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이상기후로 어려운 영농환경 속에서도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임한다면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실익증진, 일하기 좋은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제주감귤농협의 목표는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하고 조합원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감귤농협의 변화와 혁신, 도전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주감귤농협을 만들고자 제주감귤농협 전 임직원은 하나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및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주감귤농협의 주인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주감귤농협 전 임직원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늘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조합원님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목표를 위하여 다같이 힘씀을 이르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희망찬 제주감귤농협을 위해 조합원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100년 제주감귤농협" 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주감귤농협 전 임직원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늘 조합원님과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창수 **올림**



문영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감귤연구센터

지구온난화와 감귤재배지 변화

지난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왔었는데 기상관측이래 이렇게 더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너무 덥다 보니 노지감귤 과실이 터지는 열과 현상도 역대급이었다. 가온하우스는 겨울철 햇빛이 부족하여 꽃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가온이 늦어지고, 생리낙과도 증가하였으며, 레드향(감평)도 무더위에 견디지 못했다. 높은 기온 때문에 과즙의 신맛이 빨리 낮아진다. 감귤 뿐만 아니라 사과, 배, 채소 등 다른 농작물도 무더위 때문에 힘들다. 배추가 없어서 중국산 배추, 김치를 수입할 지경이니 말이다.

한편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117년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11월에 폭설이 내린 것이다. 많은 하우스가 무너져 농작물도 많은 피해를 봤다. 기후변동성 때문에 모든 일이 불확실하다. 예상되지만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 예상되지 않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은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감귤농업에도 지구온난화의 여파는 파고들었다. 1990년 후반부터 증가한 만감류 재배, 황금향 · 한라봉을 중심으로 한 노지만감류 재배, 전남지역부터 경기도까지 내륙지역 감귤재배, 극조생온주밀감을 비롯한 감귤의 착색 지연, 노지감귤 신맛 감소, 감귤 가을순 발생 증가 등 모든 것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발생된 일이다. 온난화로 중국과 인도에서의 지속적인 감귤재배 증가도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올해 감귤원예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물계절의 변화(생육기의 변화), 품종 도입, 여름철 온도와 감귤재배, 병해충 발생 상황, 꽃눈분화와 성숙 등에 대해서 게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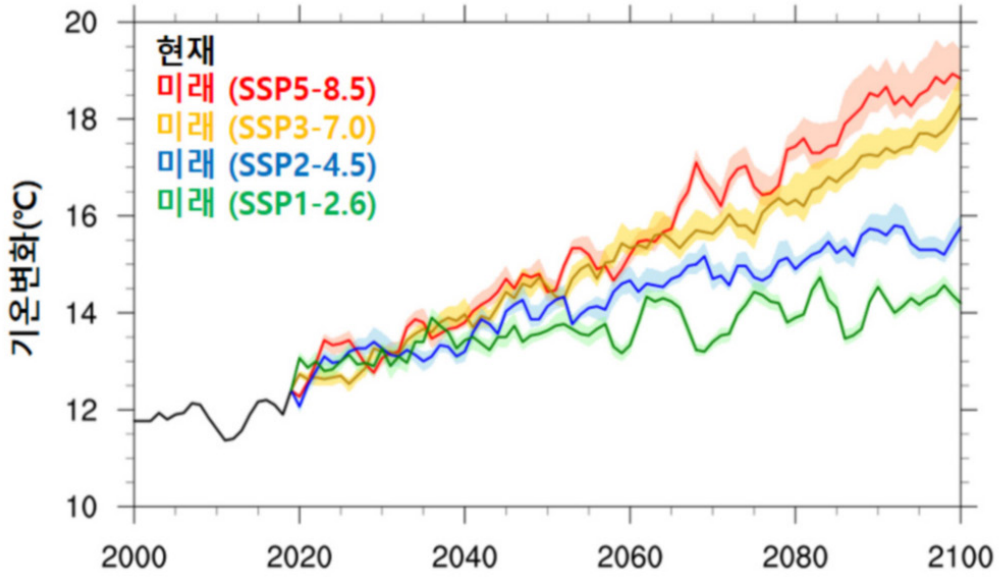
1. 기후변화의 이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에서는 202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2011~2020년의 전지구 표면온도가 1.09℃ 상승하였고, 현 상태로 가면 지구온난화의 위험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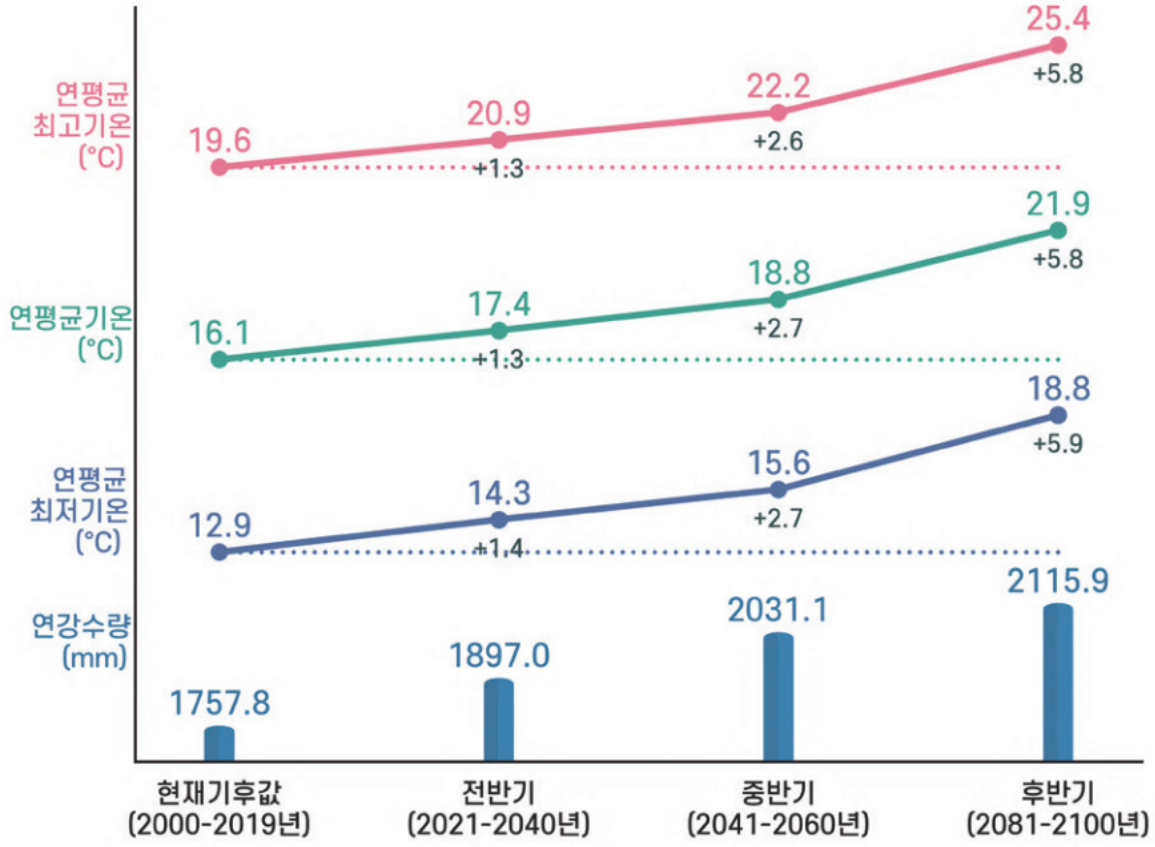
1950년 이후 관측된 많은 변화들은 지난 수십년에서 수백년간 전례가 없고 대기와 해양은 따뜻해져 눈과 빙하는 줄어들고 해수면은 높아졌으며 온실가스의 농도는 증가했다는 것이 기후학자들의 얘기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농도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북반구에서 지난 30년간은 과거 1400년 기간보다 가장 따뜻한 기간이었다고도 한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92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기온은 1.6℃가 상승하였는데, 지난 30년간 기온 상승폭의 변화가 크다. 제주, 서귀포, 성산 관측지점을 평균한 제주도 해안지역의 1973~2010년 기간 변화추세를 보면 연평균기온은 0.32℃/10년, 최고기온 0.29℃/10년, 최저기온은 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38년간 연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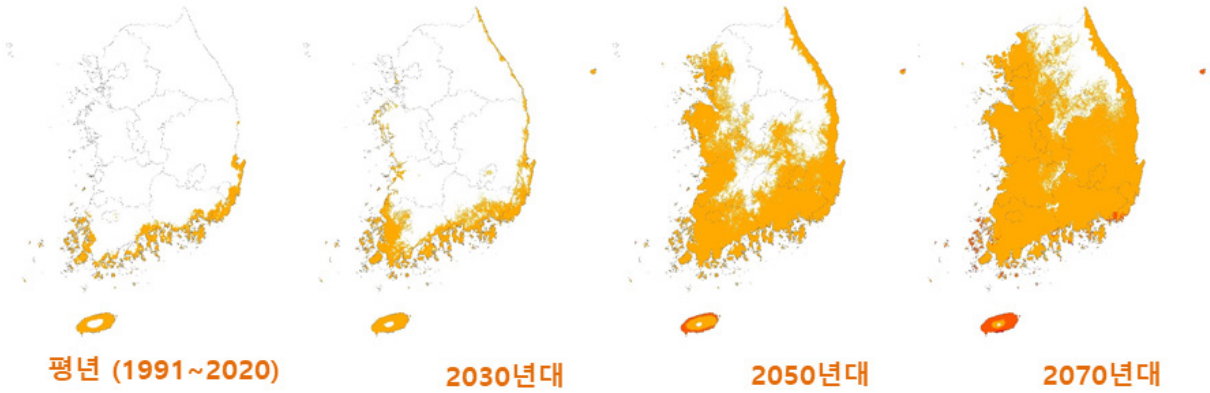
현재 추세대로 가면 미래의 제주의 기온(SSP5-8.5 시나리오)은 현재(16.1℃)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1~1.3℃, 중반기에 1.5~2.7℃, 후반기에 2.2~5.8℃ 증가되고, 연강수량은 현재(1757.8mm)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33.3~197.3mm, 중반기에 94.2~273.3mm, 후반기에 140.0~359.7mm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반도 연평균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아열대 기후대는 현재 제주와 남해 일부지역에서 중부지역까지 북상하고 감귤재배 지역도 증가될 수 있다.



<그림 1> 한반도 연평균기온 상승 전망(기상청).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동사회경제경로. SSP1-2.6(온난화 2℃ 저감), SSP2-4.5(온실가스 상당히 저감), SSP3-7.0, SSP5-8.5(기후정책이 없는 경우)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를 말함.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기온 및 강수량 전망 (기상청).



<그림 3> 아열대 기후대 변화 예측.
아열대 기후대는 연평균 기온이 10℃이상 되는 달이 연중 8개월이상,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18℃ 이하인 기후대를 말함.

2. 내륙지역 감귤 재배 동향

유자를 제외한 만감류, 온주밀감 등 내륙지역 감귤류 재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생각만큼 급격하지 않다. 2008년 48.8ha였던 내륙지역 감귤재배면적(유자 제외)은 2024년 293.7ha(1,149농가)로 16년 동안 약 250여ha가 증가하였다. 제주에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재배면적 증가보다 매우 더디게 증가했다고 보면 된다. 재배면적 증가는 노지재배보다 대부분 하우스재배로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가온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햇빛과 토양이 좋기 때문에 제주보다 품질면에서 좋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48.2ha로 가장 많고 전북특별자치도가 43.2ha, 경상남도 33.2ha, 경상북도 27.3ha, 충청남도 17.0ha로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내륙지역 감귤품종은 이전에는 한라봉이 주였지만 지금은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다양하며, 온주밀감도 시설과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표 1> 내륙지역 감귤 재배 현황*(2024)

구분	계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하례조생	유라조생	기타
재배면적(ha)	293.7	102.2	86.9	17.8	12.6	11.8	8.9	53.3
농가수(호)	1,149	366	296	90	52	63	45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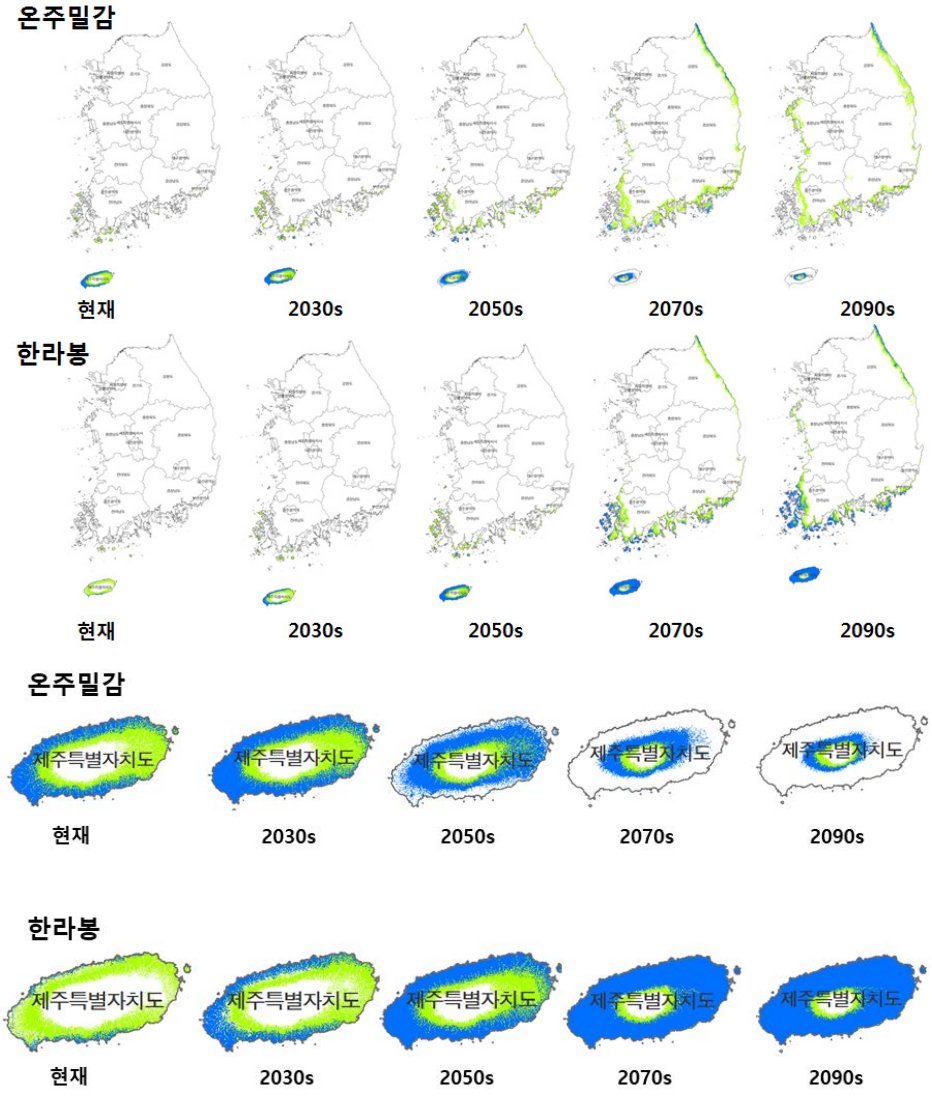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한 추정 재배면적임

내륙지역에서 노지재배는 겨울철 극최저기온이 감귤 재배 기준이 될 수 있다. 겨울철과 이른 봄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다. 현재 내륙에서 노지온주밀감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해도 따뜻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언피해(동해)나 서리피해를 받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 온주밀감은 영하 11℃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가 얼어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영하 7℃ 이하로 떨어지면 가지 및 잎에 피해를 받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영하 4℃ 이하로 내려가면 과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 2021년 1월 8일 고흥에서는 영하 14.1℃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이 정도 온도면 유자도 적응하기 힘든 온도다.

3. 감귤 잠재적 재배적지 예측

감귤은 온주밀감,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문단 등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추위에 가장 강하여 제주지역 노지에 적응했던 온주밀감은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그 재배지역이 내륙 해안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미래의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면 지금

보다 2℃ 상승했을 때 경남, 전남 해안까지 재배가 확대되며, 그 대신에 제주지역에서는 이전에 추위에 약해 재배가 힘들었던 한라봉 등 만감류, 레몬, 오렌지 등 다른 품종들의 재배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가 노지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소안도 등 남해안 일대 일부지역에서 미미하지만 온주밀감의 재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2030년, 2090년) 미국 감귤 생산지역의 확장은 가뭄, 동해 등으로 인한 수량감소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쉽게 증가하지 않을 것(2012)이라는 예측처럼 우리나라도 겨울철 동해 등에 의해 노지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감류는 난방에 의해 충분히 생육적온만 맞추면 재배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원에



<그림 5> 온주밀감 및 한라봉의 감귤재배지 변화 예측.
(파란색은 재배적지, 녹색은 재배가능지, 흰색은 부적지임.)



김주현
애월주농장 대표
초인재돌봄농장 운영
(064)799-3698
2023청창농 선정

“강창익” 조합원 2024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노지감귤”부문 은상 수상

김주현 청년 농부는 제주 애월읍에서 초인재돌봄농장을 운영 중이다. 2500평 규모로 온주밀감과 레몬을 재배 중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 연계를 목표로 청소년들과 어르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농장에서 진행한다.

2023년 청년후계농업인에 선발 된 후 제주농협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6기, 제주마이스터대학 청년CEO과정 2기를 수료했으며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한국교총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제주의 태양을 담은 황금빛 결실, 그 숨은 주역들을 만나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는 제주 감귤 농가의 열정과 기술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단순한 품질 경쟁을 넘어,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들의 자부심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기회다.



2025년 감귤원예誌에서는 2024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에서 선정된 수상자들의 농가를 찾아 그 재배 노하우를 듣도록 한다. 감귤품평회 수상자들의 감귤 재배 철학과 열정,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조명해 제주 감귤이 가진 가능성과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이야기의 첫 주인공은 2024년 감귤품평회 조생 품목 "은상"을 수상한 서귀포시 남원읍의 쭌이네 농장 강창익 조합원을 만나 그가 만들어낸 감귤의 비밀은 무엇인지, 감귤에 담긴 그의 땀과 노력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봤다.

감귤 농사의 정석, 강창익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쭌이네 농장을 운영하는 강창익(56세, 동홍동) 조합원은 제주 감귤 농가들 사이에서도 품질 높은 감귤을 재배하는 농부로 정평이 나 있다. 1968년생인 그는 15년의 농사 경력을 갖고 있다. 중장비기사로 활동하며 노지 궁천조생 감귤 800평과 비가림 재배 5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 중이다.

3년간의 재도전, 토질과 뿌리의 조화를 이루다

15년 전 양질의 땅을 구매후 계속 귤농사를 지었다가 FTA 기금 고품질 감귤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감귤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새롭게 줄을 맞춰 나무를 다시 심는 대대적인 원지 정비를 진행 한지 3년이 됐다. 이 작업은 단순히 외관 정리가 아닌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으로 간벌까지 진행한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간벌은 귤의 맛과 상품을 더 좋게 만들었고 13~15°Brix까지 나오는 맛좋은 귤을 만들었다. 1관에 만원이 넘을 정도로 가격도 좋고 없어서 못파는 상품이 됐다.

"우리 농장은 원래부터 토질이 좋았어요. 잔뿌리가 많고 물 빠짐이 좋아 감귤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 재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지 정비를 통해 모든 나무를 줄 맞춰 심었어요. 그 결과 3년 만에 품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는 현재 약 180그루의 나무를 관리하며, 매일 감귤을 수확한다. 그런데 그가 수확하는 방식은 정말 정석이다. 나무마다 번호를 정하고 샘플 귤들은 하나씩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당산도를 검사 후 수치에 맞춰 수확한다. 당도가 13°Brix이상으로 품질이 균일하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감귤은 품질 좋은 감귤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과학적 접근과 꾸준한 노력의 결실



강창익 조합원의 감귤 재배 철학은 과학적 접근과 노력의 결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감귤을 수확하기 전 반드시 당산도 검사를 진행해 수확 시점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가 없으면 항상 일정한 품질의 감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

강창익 조합원의 성공에는 그의 부인 조인숙 씨의 역할도 컸다. 조인숙 씨는 감귤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감귤 재배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농장의 품질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타이백이 처음 도입 될 시기부터 재배 기술은 부인의 조언으로 곧바로 도입한 것으로 감귤의 당도를 높이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농사 잘 짓는 방법 : 강창익 조합원의 세 가지 비법

강창익 조합원은 농사 성공의 비결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감귤 원지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감귤나무를 간격에 맞춰 다시 식재하였다. "햇빛이 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을 때 줄을 맞춰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햇빛이 농장의 80% 이상 골고루 들어가도록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귤의 성장과 품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비료와 농약의 적절한 사용도 중요하다. 감귤의 맛과 품질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병해충 관리에서 비롯됐다. 강 조합원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감귤의 건강과 수확량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중요성이다. "저는 25년 된 나무가 자란 땅을 매입했어요. 나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자라온 땅의 환경이 감귤의 맛을 결정합니다. 땅을 잘 관리하면 그 결과가 감귤 맛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강창익 조합원은 감귤 재배를 단순히 농사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감귤 농사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과학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농사는 끝없는 배움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저는 항상 더 좋은 감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와 대화하려고 합니다. 나무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나무는 그에 맞는 결실로 보답해 줍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강창익 조합원의 제주 감귤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노지 궁천을 맛보았는데 만감류를 먹는 듯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이면 우리집 귤은 어떻게 파나요?를 외치던 날이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날 지나가던 관광객이 귤을 사고 싶다고 차를 멈췄다. 직거래 없이 모두 공판장으로 넘겨지는 귤이었는데 곧바로 딴 귤을 맛볼 수 있다니 중년의 여성은 운이 좋아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창익 조합원이 쥐어 준 귤을 까먹으며 오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가족들에게도 줄 새 없이 단숨에 먹고 남편에게 귀띔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은 우리도 사먹어야 한다.”



TIP
제주 감귤 2, 3월에 해야 할 농작업



강창익 조합원은 감귤 농사가 계절별로 명확히 계획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2월과 3월은 다음 수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정지전정



겨울철에는 나무의 비효율적인 가지를 제거하고,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는 나무의 에너지 분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다음 해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병해충 예방

겨울은 병해충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로, 예방적 방제를 통해 다음 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문제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특히 가지나 나무 주변에 남아 있는 해충의 알과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땅의 관리와 비료

3월에는 나무가 깨어나기 전 땅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비료를 투입하는 시기다. 강 대표는 “비료를 줄 때는 나무의 상태와 땅의 양분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양과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수분 관리

겨울철에는 비가 적어 나무가 수분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관수 작업을 통해 나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감귤원예





김대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주무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 제4조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지난 15년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양봉농가, 수직농장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되어 농림사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에 따라 작년 8월 농업경영체법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올해 10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대상, 등록 신청 시기 및 등록절차,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며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되었다.

첫째,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 양봉업 등록기준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 을 받고 꿀벌을 사육할 것

둘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물형 인공재배 방식인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직농장 등록기준 :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

셋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

준이 없는 경우**는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 ① 농지 660㎡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② 농지 330㎡에서 시설재배,
③ 농지 330㎡에서 가축 사육

** ① 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②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③ 곤충사육,
④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 사육,
⑤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 재배

초지가 많은 제주 상황을 고려하여 초지에서 말 사육하는 농업인,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이번 고시에 반영되지 않아서 당분간 행정지침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55,562호(제주시 31,717, 서귀포시 23,845)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길 바람과 더불어 농민수당,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각종 농림사업 지원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귤원에

'25년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안내

등록 기준 주요 개선 사항 (24년 10월 10일)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 고시 제정·시행으로 실제 경작 확인 강화 및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

① (강화) 실제 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연간 120만 원 이상)
*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 또는 등록기준에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 시행 6개월('24.10.10.~'25.4.10.)이내 신규(변경) 신청한 경우 '25.10.10.까지 제출 유예(다만, 콩나물재배업, 양봉업, 수직농장, 초지는 유예 적용 제외)

② (개선)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 후 꿀벌 사육

③ (신설)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수직농장〉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바닥 재배면적 : 165㎡ 이상)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25년 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① (신고기간) 하계작물(4~6월), 추계작물(9월), 동계작물(11~12월)

② (신고대상) 재배작물 변경 (예시 : 기장 → 양배추, 콩 → 보리)
재배농지 변경 (예시 : 농지 추가, 농지 삭제)

③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농관원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uni.agrix.go.kr)으로 변경 신청

④ (이행점검) 하계작물(7~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1~2월)
재배품목 조사 → 불일치 사항 정정 조치 → 기본공익직불금 10% 감액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	이행 점검	→	결과 조치
변경신고 집중 홍보 변경신고 신청·접수		주요품목 등 등록정보 조사		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적용
하계작물(4월~6월)		7월~9월		'25년 사업 적용
추계작물(9월)	→	10월	→	'26년 사업 적용
동계작물(11월~12월)		1월~2월		26년 사업 적용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신규등록 :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uni.agrix.go.kr)으로 신청

● 변경등록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uni.agrix.go.kr)으로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 콜센터(전국)☎ 1644-8778로 신청

※ 신청서식은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 홈페이지 (www.naqs.go.kr)에서 확인

꼭 알아두세요!

✓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변경(갱신)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가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경영주)는 등록된 농지, 품목, 재배면적 등 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정보(재배품목·면적, 필지 등)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감액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하면 ①등록말소, ②1년 재등록 제한, ③고발 등 모두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농업e지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농업e지 스마트폰 접속 방법

-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
-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접속 가능

1 인터넷 검색

농업e지

인터넷 검색창에서 '농업e지' 검색
→ 농업e지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2 사이트 주소 입력

https://www.nongupez.go.kr

인터넷 주소창에서 해당 사이트 주소 입력
→ 농업e지 사이트 접속

3 QR코드 촬영

농업e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에 있는 QR코드 촬영
→ 농업e지 사이트 링크 → 클릭

★ 농업e지 영상으로 알아보기!

10분 4분(요약)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에 있는 QR코드 촬영
→ 교육 동영상 링크 → 클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Q 감귤을 수확하여 과실 내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나무에서 탈취되는 양분의 양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고 상 욱
제주감귤농협 영농지도팀
감귤경영컨설턴트
농학박사

A

감귤 과실 내에는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류, 미네랄류(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및 구리)와 다양한 식물 2차 대사 산물류(플라보노이드, 테르펜 및 페놀)와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들 물질은 유기물(탄소)과 무기물로 구성된다.

그래서 수확을 하면 감귤 내의 유·무기물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과실 중에는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 성분이 과중의 0.1~1.3%의 수준으로 많은 양이, 그리고 철, 망간, 아연, 구리, 알루미늄 등이 3~40 ppm 농도 수준으로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 양분이 탈취당하는 과실은 탄소, 수소 및 산소는 자연에서 공급 받고, 질소는 일부 만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여 이용한다. 그 이외의 원소들은 재식 된 토양 자체에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추가 공급을 받아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매년 감귤을 수확하게 되면 수량이 많으면 많은 양이 적으면 적은 양의 양분이 소모된다.

〈표 1〉에는 오렌지 품종별 과실 500상자(20,430kg)를 1에이커(4,050㎡)에서 생산할 때 과실로 인하여 날아가버리는 무기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비료의 5대 원소인 N, P, K, Ca, Mg 중에서 아래의 어느 품종에도 동일하게 N, K, Ca 성분은 많은 양이, P와 Mg 성분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

표 1. 4개 오렌지 품종 500상자 과실의 미네랄 성분 총 함량. 3년간 평균 (1994-96).

성분	신선과일 기준 500상자(20,430kg) 과실 중의 파운드(1lb : 454g)			
	햄린	퍼슨브라운	발렌시아	선버스트
N	52.8	56.2	66.8	67.4
P	7.3	7.4	10.0	8.8
K	67.2	65.9	71.7	69.5
Ca	19.9	24.5	21.4	16.7
Mg	5.2	5.9	5.9	5.0
Fe	0.10	0.15	0.19	0.17
Mn	0.017	0.028	0.023	0.022
Zn	0.158	0.187	0.158	0.197
Cu	0.025	0.029	0.034	0.034
Al	0.099	0.098	0.097	0.083

자료 : A. K. ALVA등 1998.

1년에 500상자의 햄린(Hamlins)을 수확하였을 때 그 해에 1에이커에서 각각 52.8, 7.3, 67.2 파운드의 N, P, K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Q 어린 나무를 키워 나갈 때, 또는 지난해 착과량이 적어 올해는 과다 착과가 예상될 때 꽃이 적게 피도록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A 어린 묘목을 재식하여 키워나가는 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열매가 달리지 않았을 때보다 생장량이 적다. 때문에 꽃과 열매를 따내어 조기에 새로운 신초를 받으면서 나무를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발아, 전엽되어 성숙한 잎이 붙어있는 액아에서는 꽃눈이 분화되어 이듬해 개화한다. 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활동이다. 꽃을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양을 줄일 수는 있다. 화아가 발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온전하게 꽃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감귤 나무에 열매가 달리면 그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지베렐린(GA)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은 꽃이 만들어지지 않게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열매가 많이 달린 이듬해에는 해거리가 이어지는데 이는 전년도에 착과된 열매에서 만들어진 GA이 꽃의 발달을 억누르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합성된 GA을 꽃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외부에서 살포하게 되면 흡수하게 되어 꽃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겨울철 GA을 살포하는 것으로 화성제어 유전자인 CiFT (Citrus FLOWERING LOCUS T)의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착화가 억제되며 외부에서 GA를 처리하면 꽃눈 분화 과정인 눈에 대하여 화아 형성을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꽃이 덜 피게 된다. GA의 감수성은 화아분화 단계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극조생과 조생 밀감에서는 12월 상순에, 중생인 경우 12월 하순, 만숙성 감귤은 2월 상순에 살포한다. 기계유유제도 감귤 꽃눈 발달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GA과 혼용하여 살포하게 되면 GA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GA 2.5ppm과 기계유유제 60배를 혼용하여 살포하면 이듬해 꽃의 수를 줄일 수 있다. 1회만 살포하며, 살균제를 뿌리듯 약제가 잎에 골고루 묻을 정도로 살포하는데 약제의 희석은 지베렐린 3.1%로 제조된 1.6g 단위 포장 40.325g(1.6g 용기 25.2개)과 기계유유제 8.3 리터를 혼용하여 물 25말(500리터)에 채워 살포한다.

표 2. 온주 밀감의 지베렐린과 기계유유제 혼용 살포에 의한 이듬해 착화수와 신초수 억제 효과

처리구	100 마디당				
	착화수(개)			착과수(개)	신초수(본)
	유엽화	직화	합계		
지베렐린과 2.5 ppm 단용	17.3	208.1 a	225.5 ab	40.6	13.3
지베렐린과 2.5ppm+기계유유제 60배	30.7	100.6 b	131.3 c	41. 1	23.5
지베렐린 2.5ppm+기계유유제100배	18.3	178.4 ab	196.6 bc	39.1	12.3
무처리	24.6	255.6 a	280.2 a	41.7	10.7
유의성	n.s.	*	*	n.s.	n.s.

자료 : 阿部 등 2013.

※ 일남일호 20년생 시험수, 2012.
12월7일 살포, 4월 중순에 각구 결과 모지 18본의 착화수와 신초수 조사, 착과수는 생리 낙과 후 7월 상순 조사.
* 터키검정 5% 수준



Q 칼슘 성분은 나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칼슘(Ca)은 필수 식물 영양소이며 비료의 5대 요소 중 하나일 정도로 많이 소요된다. 질소, 칼리에 이어서 식물에 대량 필요로 하는 성분이며 또한 양이온($Ca2^{+}$)으로서 세포 분열과 확장에 필수적이다.

건강한 식물 조직의 Ca 함량은 일반적으로 건조 물질의 0.1~1%를 초과한다. 식물에서는 주로 뿌리 시스템을 통해 토양 용액에서 Ca을 흡수하여 분열조직과 어린 조직으로 이동하는데 물관을 통해 공급된다. ^{45}Ca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이동성을 검정한 결과 체관부에서는 이동되지 않는 고정요소이나 활발하게 성장하는 식물의 물관부로의 이동성은 높다. 뿌리에서 수체의 위쪽으로의 이동은 증산을 통하여 비롯되는데 질량 흐름에 의해 이동하지 않고 물관 벽의 음전하 부위를 따라 일련의 교환 반응에 의해 이동한다.

목본 식물에서는 상부로의 칼슘의 이동은 비교적 느리며 나무껍질에 많은 양이 축적되고 목재에는 거의 축적되지 않는 반면 초본 식물에서 칼슘은 빠르게 고정된다. 잎에 살포된 칼슘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2가 양이온으로 잎의 흡착 부위가 포화되거나 킬레이션되어 이동하도록 유도될 수 있으며 칼슘이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를 따라 물관의 흐름에 반대로 이동하기도 한다. 과일로의 칼슘 유입은 과실의 발달과 함께 감소하고, 체관을 통한 광합성 산물의 빠른 유입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중단되어 과일 내의 칼슘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나 최근 12가지 과일에서 과실 자루 내의 Ca의 함량과 과일 내의 칼슘 함량이 정의 상관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과일로의 Ca의 이동성이 낮은 것은 잎에 비해 과일의 기공 밀도가 낮고 단위 면적당 큐티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증산작용 속도가 낮고, 물관부 수송을 통해 과일 기관으로 Ca를 전달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과실 자루 내 유관속의 물관 기능이 상실과 물관 내 수액의 Ca 농도, 잎과 과일의 증산 및 생장 속도를 비롯하여 기관 발달 중 지배적인 환경 조건을 포함한 많은 내부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과일 발달 중 Ca 결핍 대책으로 생장기 동안 Ca 비료를 공급하려면 다른 기관에서 과일로 Ca의 재이동 및 운반되는 속도가 제한되므로 과일에 엽

면 살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과실에 Ca을 살포하는 것은 과일 품질과 저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표3에는 Ca의 감귤의 기관별 이동성을 보기 위하여 행한 시험 결과인데 토양 내에서는 이동이 잘 되고 과실에는 거의 이동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45}Ca 토양 처리 후 'Clemenules' 만다린 다양한 기관(뿌리, 줄기, 새싹 및 과일)에서의 ^{45}Ca 활성

조직 시료	^{45}Ca 활성	
	그램당분당 방사능 붕괴량(DPM/g)	기관 중 비율(%)
토양	6902.1 ± 828.9 a	56.0 ± 6.7 a
뿌리	2406.0 ± 777.35 ab	19.5 ± 6.3 b
수관	1796.8 ± 231.3 c	14.6 ± 1.8 b,c
가지	1184.4 ± 259.1 d	9.6 ± 2.1 d
과실	25.9 ± 3.17 e	0.3 ± 0.1 3

자료 : Claudia 등 2020.

Q 감귤 나무의 지상부를 전정하여 잘려나가면 지하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정하지 않은 나무와 차이가 있나요?

A 이른 봄 전정하게 되면 잎, 줄기, 수관 등 나무의 생체중이 줄어드는 반면 이에 대한 나무의 반발력으로 전정하지 않은 나무에 비하여 새로운 잎, 가지 등이 더 많이 발생하여 전정하지 않은 나무보다 더 생장량이 많아진다. 전정 양에 따라 그 이전 생장량보다 많거나, 적거나 동일할 수 있는데 외관적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하부의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발렌시아 오렌지 18년생 나무의 지상부 1/3을 잘라내었을 때 무전정 나무보다 지하부 뿌리 생장량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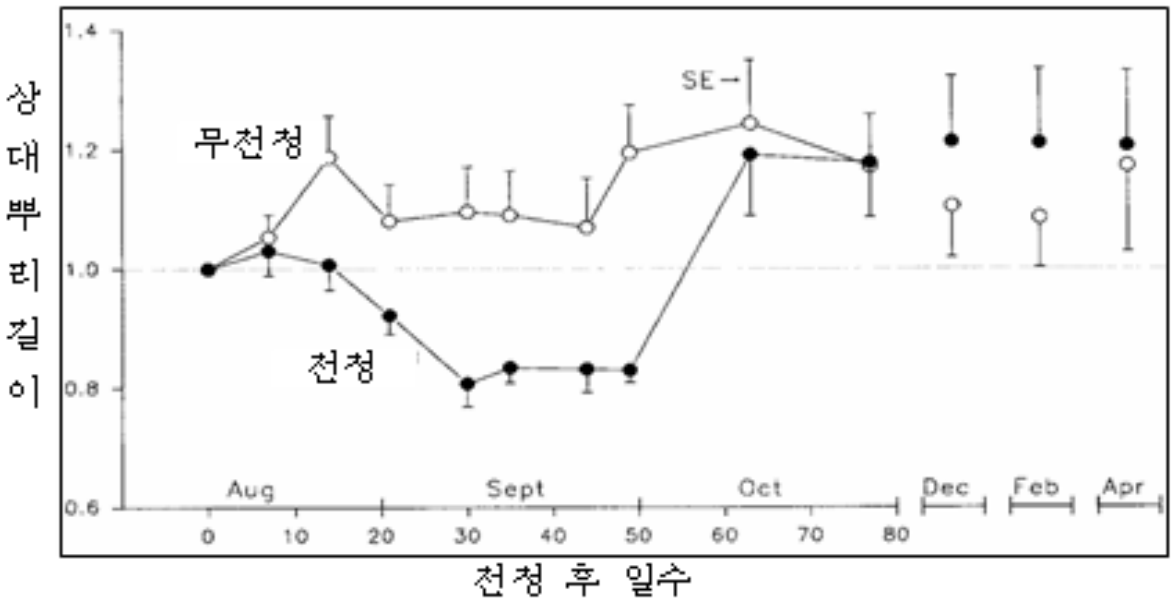
적어도 전정 후 30일까지는 토양 깊이 9~35cm에서 전정해낸 나무의 뿌리 중 20%가 죽은 것으로 보여 지상부를 잘라내면 지하부 생장이 평소에 자라던 양보다 줄어드는 것이 밝



혀졌다. 전정 후 63일이 경과 되면 무전정 나무에 비하여 생장량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정 후 9~11개월에는 지하 1m 깊이까지의 잔뿌리와 잎의 총 바이오매스는 전정한 나무와 무전정 나무에서 비슷하였지만 무전정 나무는 4월에 과일 수량으로 바이오매스를 얻었고, 전정한 나무는 내년에 착과 할 신초를 얻게 되었다. 전정한 나무에서 수확된 과일 바이오매스는 무전정 나무의 24%에 불과하였지만 5월에는 전정한 나무의 가는 뿌리와 굵은 뿌리 내의 비구조적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무전정 나무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과일 바이오매스의 수량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영년생 과수에서 전정 10개월 후, 전정한 나무의 뿌리에서 저장 탄수화물 농도는 전정하지 않은 나무보다 더 커진다. 해마다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수량을 거의 내지 못할 정도의 강한 전정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년에 착과 할 신초의 발생이 전혀 없을 정도의 무전정 또는 약전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묵은 잎이 존재하고, 신초가 발아하여 굳어지고, 다시 뿌리가 발생하여 굳어지고, 과일이 적절하게 맺어져서 커가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라 할 수 있다. 감귤원예



18년생 발렌시아 오렌지 수관 상부 1/3 전정 후 9-35cm깊이 사이의 상대적 뿌리 길이

자료 : D. M. EISSENSTAT 등 1992.

2~3월 노지감귤 주요 관리 요령



한 영 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TEL. (064)-760-7823

2025년 을사년(乙巳年) 한해도 감귤 재배 농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날씨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리낙과와 열과 발생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10.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올해산 노지감귤 품질이 좋아 가격은 지난해보다 7% 상승되어 가격측면에서는 양호한 해였다고 본다. 하지만 수확기 계속되는 비날씨로 수확시기가 늦춰지고 부피·부패과 발생 우려가 많았듯이 앞으로는 변화되는 이상기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기상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정 및 병해충 방제 시기 등의 농작업 활동을 기상 상황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 지날수록 계속되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늘 그래왔듯이 제주 감귤재배 농업인들께서는 철저한 영농계획과 실천을 통해 지혜롭게 이겨내리라 믿는다.

노지감귤 월별 출하량 및 평균가격(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12. 10.기준) (톤, 원/5kg)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평균
2024년	거래량	255.6	11,669.3	18,437.4	7,539.9	37,902.2
	평균가	11,336	9,130	11,306	12,766	11,135
2023년	거래량	332.4	15,775.4	22,363.8	7,722.2	46,193.8
	평균가	10,130	9,402	10,782	10,838	10,288
2022년	거래량	329.4	15,116.2	21,432.7	8,324.6	45,202.9
	평균가	12,739	8,074	7,635	7,900	9,087

- 거래량은 37,902톤으로 2023년 대비 17.9% 2022년 대비 16.2% 감소
- 평균가격은 11,135원으로 2023년 대비 8.2%, 2022년 대비 22.5% 증가

■ 2~3월 감귤나무의 생리생태

▶ 2월은 감귤나무의 생리적 꽃눈분화가 끝나고 형태적 꽃눈분화가 되는 시기로 1월 하순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꽃눈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무의 영양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전정시기 및 방법, 기상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꽃눈분화에는 질소와 인산함량이 직접적인 역할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칼륨 또한 간접적으로 꽃눈분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 일조시간이 많으면 잎의 동화능력을 높여 꽃눈형성을 촉진한다.
- 꽃눈형성 촉진은 적정결실, 전정방법, 독립수 유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3월이 되면 수액 이동이 활발해지며 꽃눈분화가 마무리되고, 묵은 잎의 낙엽 시작과 뿌리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비료를 시비하여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여 준다.

■ 과수원 정비 및 간벌

• 감귤원 1/2 간벌 실천

- 간벌은 햇빛이 골고루 비치어 착색이 좋아지고 당도는 높아지며 바람이 잘 통하여 병해충 발생이 감소한다. 또한 농약살포, 정지전정, 시비, 수확 등 농작업 편리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필수 농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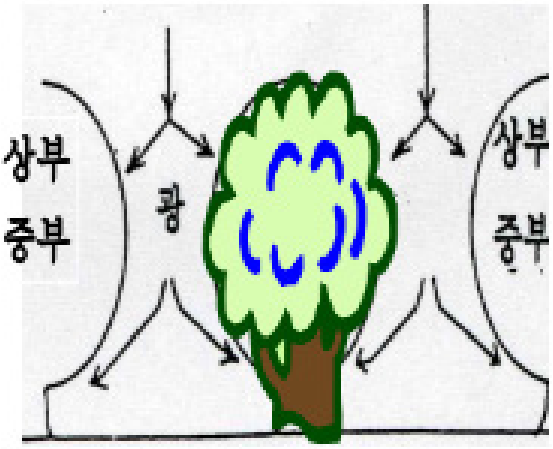
▶ 간벌 시기 : 2 ~ 4월

▶ 간벌 방법

- 토양피복, 작업노력의 생력화를 고려하여 반드시 열 간벌을 원칙으로 함
-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남북방향으로 실시

▶ 간벌효과

- 품질향상 : 당도 0.5° Bx 상승, 산함량 0.07% 감소
- 병해충방제 : 1.8시간 절약 (간벌 전 3.0시간 → 후 1.2시간/10a)
- 수확시간 : 12시간 절약 (간벌 전 43.5시간 → 후 31.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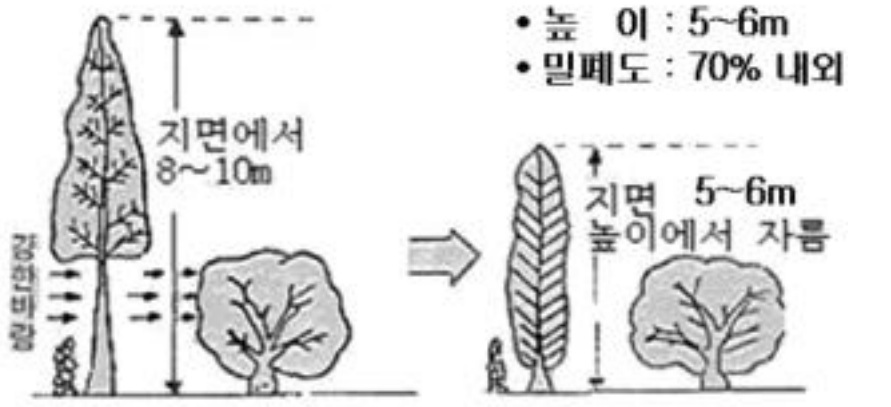


※ 나무를 독립화 시켜 지표면에 햇빛이 충분히 닿게 해준다

• 방풍수 정비

- 울타리 방풍 5~6m, 사이 방풍 3~4m, 밀폐도 70%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방풍수 제거 시 궤양병 및 바람피해 열매 발생



<정리 전> <정리 후>

■ 토양관리

▶ 토양이 산성화되면 뿌리활력이 감소되고 비료 이용률이 낮아져 품질 좋은 감귤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토양의 화학성 및 물리성 개선을 위해 석회고토를 이용하여 토양 pH를 5.5~6.0으로 교정해 나가야 한다.

▶ 유기물을 시용하면 토양 물리성 개선 및 입단화 촉진, 토양 완충력을 증대시키고 미생물 활동을 촉진한다. 유기물은 2톤/10a 정도 살포하며 이때 완전 부숙된 거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잔뿌리는 미숙한 유기물에 닿으면 팽창되거나 부패하여 끊어짐 피해 발생

• 토양검정에 의해 시비량을 결정하고 시비해야 한다.

- 검정항목 :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K, Ca, Mg, 석회요구량
- 소요기간 : 약 30일 전후
- 토양시료 채취방법 : 한 필지당 5개 지점에서 겉흙을 걷어내고 토양을 500g 정도 채취한 후 혼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의뢰



토양채취 지점 수관 하부



토양채취 부위를 넓게 유기물을 걷어낸다.



토양을 잘게 부수고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시료봉투에 담는다



시료봉투는 지퍼백, 크린백 또는 깨끗한 비닐봉지 사용
※ 농약봉지, 비료포대, 영양제봉지든은 토양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주위

■ 봄비료 시용

봄비료는 감귤나무가 발아 후 가지와 잎의 생장, 개화 및 어린과일 발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3월 상·중순경에 시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발아가 빠른 품종, 봄 기온이 높은 곳, 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비료를 일찍 시비한다. 시비하는 양은 토양 검정 후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토양검정을 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봄비료 표준시비량을 참고하여 시비하면 된다.

<봄비료 시비량('05. 감귤연구소)> (시용량: kg/10a)

구 분 (수령별)	화산회토양			비화산회토양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10	7.4	14.0	3.7	6.6	12.6	3.2
20	11.5	20.0	5.7	10.5	18.0	5.1

비료종류	성분량(N–P–K)	시용량(kg/10a)
복합비료	21–17–17	55(2.8포)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58(2.9포)
복합비료(감귤달콤1호)	8–7–6	143(7.2포)
복합비료(따봉감귤)	7–6–4	164(8.2포)

〈복합비료 종류에 따른 봄비료 시용량(20년생 화산회토 기준)〉

* 복합비료 살포시 부족한 성분의 비료는 질소인 경우 요소 또는 유안 등, 가리인 경우 황산가리 또는 황산가리고토 등을 활용하여 살포.

■ 정지·전정

정지·전정의 목적은 새로 나올 가지와 꽃 피는 양을 조절하여 해거리 폭을 줄이고 햇빛 비침을 좋게하여 병발생 감소와 품질향상, 그리고 농작업 편의성 향상에 있다.

정지·전정 작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농가 스스로 작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주밀감의 특성과 생리를 이해하고 나무를 과감히 잘라보는 적극적인 참여로 정지·전정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과원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본다.

• 풍작이 예상되는 감귤나무 정지·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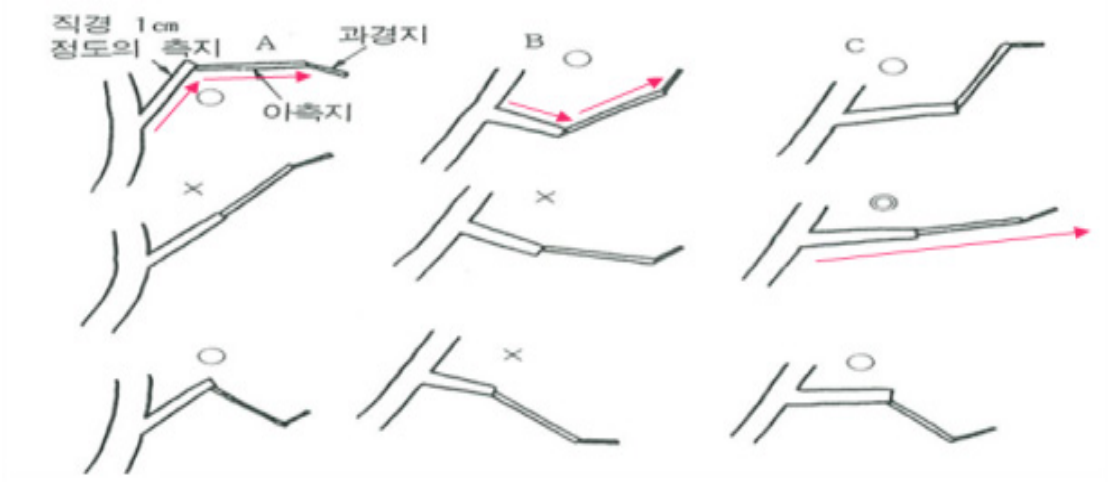
- 전정시기를 3월 상순부터 시작하며 절단전정 위주로 꽃피는 양을 줄여 예비지 확보를 철저히 한다.
- 봄 순이 나올 가지를 50개 이상 만들고 주위에 녹지는 전부 제거한다.

* 결과모지 10개에 대해 예비지 1개를 기준으로 확보한다.

• 수세가 약한 감귤나무 정지·전정

- 전정시기를 4월로 늦추고 꽃봉오리 발생상황을 보며 솎음전정 위주로 실시하며 열매 달렸던 가지 중 40~50%정도 봄 순이 나올 가지를 만든다.

* (주의) 솎음전정 위주의 전정은 수세 약화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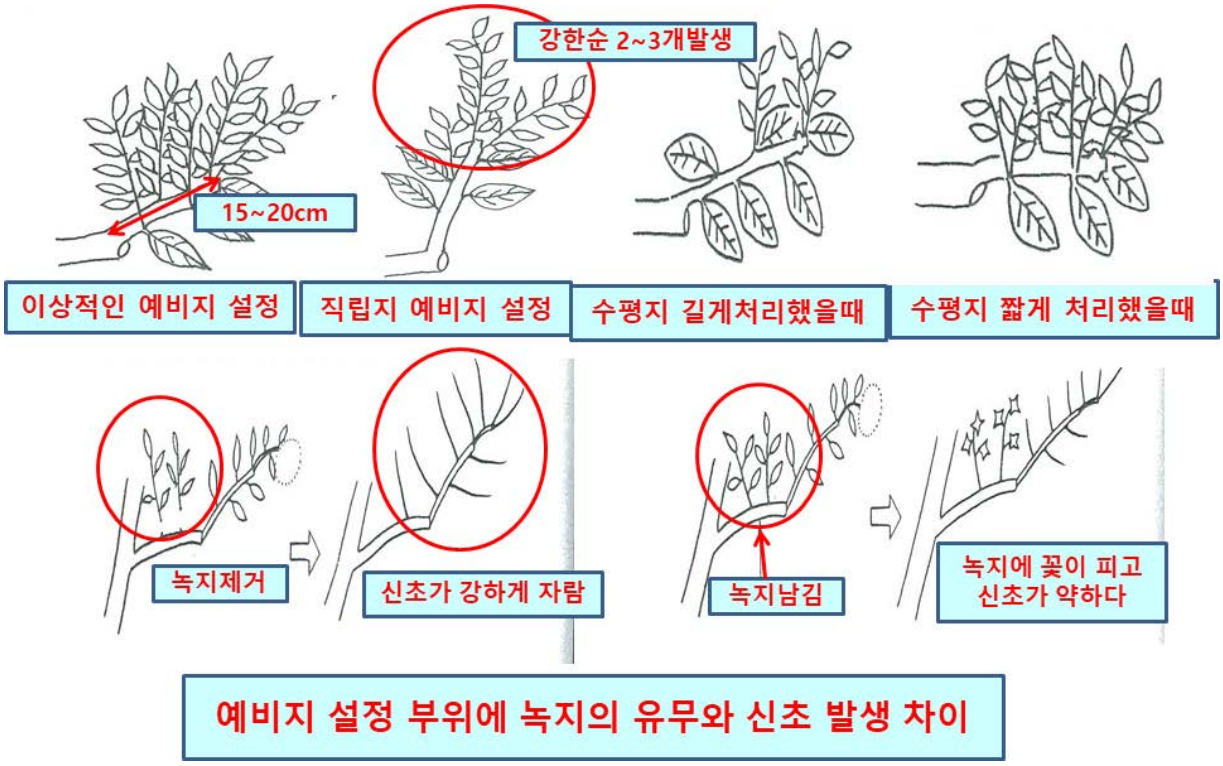


A: 바로 선 가지 예비지 설정 ⇒ 강한 결과모지 발생: 가지 수평, 세력 약화

B: 밑으로 늘어진 가지 예비지 설정 ⇒ 약한 결과모지 발생: 가지 세움, 세력 높임

C: 수평으로 뻗은 가지 예비지 설정 : 가지 수평, 45° 세움

<그림 1. 예비지 설정 방법>



<그림 2. 예비지 설정과 순발생>

■ 병해충 방제

▶ 최근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월동해충이 많아지고 있다. 농약살포에 앞서 과수원 내 병해충 전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정지 전정 후 파쇄하지 않고 쌓아 놓은 가지, 버려진 열매 등을 우선 제거 한다.

▶ 응애 및 깍지벌레가 많았던 과원은 2~3월에 기계유유제를 60~80배액으로 살포하였으나, 겨울철 추위로 낙엽 현상이 심하고 꽃눈분화가 적어지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기계유유제 살포는 4월말~5월초 백화기 때 살포하는 방법이 좋다.

▶ 병해충 방제 계획은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병해충, 특히 총채벌레에 대하여 1~2회 추가 방제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귤원예

2~3월 하우스감귤 재배 관리요령



양 지 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TEL. (064)760-7643

금년도에는 10월 이전 가온 농가가 줄었을 뿐 아니라 가온 시기가 전년보다 7~10일 정도 늦어졌다는 여론이 있다. 저번 호에서도 기술하였듯 화아분화는 기온, 토양 온도, 일조 조건, 수체 내 영양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작용을 하지만 온도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중하순부터 최저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긴 했으나, 서귀포기상대 기준 10월에서 11월까지 기온은 전·평년 대비 높았다(평균기온 1.2~2.1℃, 최저기온 1.4~2.5℃, 최고기온 1.2~1.8℃).

강수량은 전·평년 대비 25.7㎜ ~ 175.7㎜ 많았다. 특히 11월 강수량이 많았는데 이는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11월 1일 하루에 126㎜의 비가 왔었다. 10월과 11월 일조시간을 보면 전·평년 대비 7.6시간 ~ 106.2시간이 적었으며 특히 10월 일조시간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금년도 가을철은 흐린날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1개월 전망(12월 5일 발표)을 살펴보면 12월 중순 이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라니냐와 북극해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때가 있어 기온의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상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1. 2024년 10~11월 서귀포 기상 현황>

구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일조시간(hr)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본년 (A)	21.7	15.7	18.9	12.6	25.3	19.6	126.0	220.9	146.1	161.5
전년 (B)	19.9	14.5	16.6	11.2	23.7	18.0	5.9	45.2	252.3	198.4
평년 (C)	19.6	14.5	16.4	11.2	23.5	18.4	100.3	86.1	208.2	169.1
전년대비 (A–B)	1.8	1.2	2.3	1.4	1.6	1.6	120.1	175.7	–106.2	–36.9
평년대비 (A–C)	2.1	1.2	2.5	1.4	1.8	1.2	25.7	134.8	–62.1	–7.6

■ 조기가온하우스 재배관리(12월 중순 이전 가온)

- **생육상태** : 개화~과실비대 초기
- **온도관리**

- 낙화가 끝나면 최고온도 23~24℃, 최저온도 18~20℃로 관리하나, 생리낙과 진행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3일 간격으로 0.5℃ 온도를 높이고, 흐린 날이 계속되면 온도를 높이는 것을 중단하거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1~2℃ 정도 낮추어 관리하여 생리낙과를 줄여야 한다.
-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녹화가 늦어지고, 탄수화물 소비가 많아져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맑은 날이 3일 정도 지났을 때 점차 온도를 높여준다.
- 급격한 온도 상승은 호흡 반응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3~5일 1℃씩 올려주는 것이 과실 생육에 유리하다.
- 1차 생리낙과 종료 이후부터는 7~10일 간격으로 1℃ 정도 올려 만개 후 40일부터는 최고온도 26℃, 최저온도 20℃로 관리하고, 만개 후 50일부터는 최고온도를 29~30℃, 최저온도 22~24℃까지 점차 높인다.
- 2차 생리낙과 종료 시기(만개 후 50~60일경)부터는 최고온도 28~30℃, 최저온도 24℃ 정도 40~50일 유지하여 과실 비대에 주력한다.
- 가온 후 꽃이 적은 하우스는 최고온도 22~23℃, 최저온도 16~17℃ 정도로 저온 관리하여 낙과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지하여 착과량을 높이며, 착과량이 적은 하우스는 새순 정리 및 5매 이상 유엽화 잎 제거 등을 통해 과실과 양분 경합을 줄여 착과량을 높인다.
- 수세가 약하고 유포가 작아 비대가 불량한 하우스는 2차 생리낙과가 끝나는 시기에는 최고온도 28℃, 최저온도 21~22℃ 정도로 저온 관리한다.

- **물관리**

- 낙화기까지는 잿빛곰팡이병 예방을 위해 7~10일 간격으로 10~15톤/10a 정도 관수량을 줄여 잿빛곰팡이병 예방에 노력하고 되도록 지면으로 관수한다.
- 꽃잎이 떨어진 이후(낙화 이후)에는 조기에 과실 비대를 촉진하기 위해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한다.
- 과실이 비대하는 시기에는 5~7일 간격으로 20~30톤/10a 정도 맑은 날 오전 중에 관수하되, 과원 내 배수 등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과수 간격 및 관수량을 결정한다.
- 과실 횡경이 20㎜가 넘어가면 관수량을 줄이기 시작하여 중간 단수를 할 준비를 한다.
- 흐린 날이 여러 날 지속되어 이상낙과 증상이 보일 때는 엽면 살수는 가급적 하지 말

고 관수량도 다소 적게 한다.
- 생리낙과기에 찬물을 엽면살수 하면 급격히 낙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조기적과**
- 1차 생리낙과가 끝날 무렵 기형과, 소과, 잎 3매 이상 유엽과를 위주로 적과한다.
※ 조기적과는 과실의 비대를 촉진하고 25㎜ 이상의 과실이 떨어지는 이상 낙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마무리 적과는 과실 횡경 기준 35㎜ 전·후로 실시하며 착과 위치에 따른 품질 위주로 적과를 하며, 상단부 대과 또는 상처과 중심으로 15% 내외 열매를 제거하며, 중·하단부에 극소과를 제거한다.

이상낙과 예방

▶ 흐린 날이 지속되어 이상낙과가 발생할 시 수상 살수를 피하고 관수량을 줄이며, 한낮에 갑자기 찬물로 수상 살수할 시 낙과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훈증처리는 지양한다.
▶ 과실 꼭지 부분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과실이 보이면 최저·최고 온도를 2℃ 정도 낮추고 심하게 낙과되면 최저온도 16℃, 최고온도 22℃로 낮추어 관리한다.

● **흑점 유사 증상**
- 과실에 흑점 유사 증상은 2차생리낙과 종료(가온 70일경) 전·후로 발생하여 과실 횡경이 30㎜될 때까지 발생한다.
- 과정부(배꼽) 부분에 과피 조직이 죽기 때문에 검은 반점의 형태로 나타나며 심한 과실은 낙과 되는데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조부족, 고온, 과피의 질적 문제 양수분 경합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병해충 방제**
- 잿빛곰팡이병은 만개기 전후 2회 정도 약제를 살포하여 주고 개화량과 하우스 내 공중 습도에 의해 발병 정도가 다르므로 맑은 날 꽃잎을 떨어내는 것도 병 방제에 효과적이다.
  · 다만 꽃잎이 달린 어린 과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꽃잎이 갈변하기 직전 무거운 상태에서 손으로 작은 진동을 주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압의 바람이나 물로 꽃잎을 털지 말고 심하게 흔들거나 두드리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 잿빛곰팡이병은 약제 연용 시 내성 우려가 있어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를 선택해서 살포해야 한다.

- 차먼지응애는 1차 낙과 종료 후 적용약제를 1차 살포한다.
- 검은점무늬병은 1차 생리낙과 종료 후부터 수상 살수하거나 빗물이 유입될 시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 총채벌레류는 겨울철이 따뜻했을 경우 조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찰 후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 과실 낙과 >



< 총채벌레 피해 >

■ 후기가온하우스 재배관리(12월 중순 이후 가온)

- **생육 상태** : 발아~생리낙과
- **온도관리**

- 꽃봉오리가 70% 정도 확인이 되면 온도를 서서히 내려 최저온도 16~17℃, 최고온도 23~24℃까지 내려 꽃이 충실해지도록 한다.
- 가온 후 40~45일이 지나면 꽃이 충실해지면서 만개가 되는데, 고온으로 관리하여 만개가 빨라지면 자방이 충실하지 못하고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으며, 후기 열과를 조장할 수 있다.
- 꽃잎이 다 떨어지면 최고온도 23~24℃, 최저온도 18~20℃로 관리하되, 생리낙과 진행 상황을 보면서 3일 간격으로 서서히 온도를 0.5℃씩 높이고, 흐린 날이 지속되면 온도를 높이는 것을 중단하거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1~2℃ 정도 낮춰 관리하여 생리낙과를 줄여야 한다.
- 생리낙과 시기에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녹화가 늦어지고,

탄수화물 소비가 많아져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맑은 날이 3일 정도 지났을 때 점차 온도를 높여준다.
- 가온 후 꽃이 적은 하우스는 최고온도 22~23℃, 최저온도 16~17℃ 정도로 낙과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지하여 착과량을 높인다.

● **물관리**
- 개화 이전까지는 2~3일 간격으로 10~15톤/10a 정도로 관수하고 관수 기간을 짧게 하여 하우스 내 습도가 높아지도록 한다.
- 개화 초기에서 낙화기까지는 7~10일 간격으로 10~15톤/10a 정도 관수하여 잿빛곰팡이병 예방에 노력한다.
- 만개 이후에는 조기에 과실비대를 촉진하기 위해 관수를 충분히 해준다.
- 이때, 5~7일 간격으로 20톤/10a 내외를 기본으로 화산회토양은 일수를 늘리고 비화산회토양은 1~2일 정도 앞당겨 엽면 살수와 겸하여 실시한다.

● **병해충 방제**
- 잿빛곰팡이병은 하우스 내부 습도가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개기 전후로 하여 2회 정도 약제 방제를 하는 데 맑은 날 오전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잎에 묻은 약제가 바로 마를 수 있도록 한다.
- 잿빛곰팡이병 또한 약제저항성이 쉽게 발현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 사용한 약제와 계통이 다른 약제를 선택하여 살포한다.
- 과실에 암술이 늦게까지 붙어있는 포장은 재차 살포하는 것이 생리낙과를 줄이고 추후 열과도 줄일 수 있다.
- 응애류와 총체벌레류는 약제저항성 발현이 쉬우므로 예찰을 철저히 하여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를 활용하여 방제를 해준다.

■ 월동비가림감귤 재배관리

● **생육 상태** : 수확 후 ~ 발아

● **온도관리**
- 1~2월 중 수확을 완료한 월동비가림감귤은 오랜 기간 단수와 겨울철 한파로 수세가 약해진 상태이다.
- 수확 후 관수하되 한 번에 많은 물을 주게 되면 낙엽이 될 수 있으므로 5톤/10a 내외로 관수 후 3~5일 후 20톤/10a 이상 관수하여 서서히 수세를 회복시킨다.
- 2회 관수 후 요소와 같은 질소질 비료를 이용하여 엽면시비를 하되, 수세가 좋으면

0.2%(요소 40g/물 20L)를 7~10일 간격으로 1~2회, 수세가 약할 경우 0.1~0.15%(요소 20~30g/물 20L)를 7~10일 간격으로 2~3회 정도 엽면시비한다.

● 온도관리

- 수확 후 천창과 측창 비닐을 개방하며, 눈 또는 많은 비가 올 때는 천창을 닫아서 관리한다.
- 가급적 서리피해가 없을 때 온도관리 하는 것이 좋으며, 발아 전까지는 최고온도 15~20℃, 발아(출뢰)가 시작되면 최고온도 25℃ 이하로 유지하되 온도편차 10℃ 이하로 관리한다.
- 최고온도가 높으면 꼭지깃이 발생하고 자방이 충실하지 못하여 생리낙과가 많아지므로 발아에서 만개까지 일수는 40~45일 정도가 적당하다.

● 물관리

- 비닐피복 전에는 20~30톤/10a 정도 충분하게 관수하고, 비닐피복 후에는 3~5일 간격으로 10㎜/10a 정도로 백화기까지 관수한다.

● 시비관리(봄비료)

- 3월 중순 이후 시비하여 천·측창 모두 개방하여 관리하되, 금년도 착과를 목표로 하는 과원은 노지재배에 준하여 시비하며, 착과가 안 될 과원은 표준 시비량의 70% 정도 시비한다.

성분량	시비량(kg/10a)	
	1년 시비량	봄비료
21–17–17	110	55(2.8포)
20–18–15	116	58(2.9포)
8–7–6	287	143(7.2포)

● 정지·전정

- 올해 착과를 목표로 하는 과원인 경우 여름순 20~30% 정도는 결과모지로 이용하고, 가는 과경지 등은 솎음전정으로 제거한다.
- 상부에 예비지를 확보하여 수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으며, 볼펜 굵기 이상의 과경지는 절반 이상 단축 전정한다.
- 올해 착과가 안 될 과원인 경우 과경지 정리하여 봄순이 강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2~3년생 측지를 많이 남겨 도장지 발생을 줄인다.
- 전정은 3월 말에서 4월 상순경 최대한 늦게 실시한다.

■ 극조생온주 보조가온 재배

● 온도관리

- 보조가온 개시 일주일 전에 천·측창을 닫고 관리하다가, 보조가온 개시(2월 중·하순경)하면 최저온도를 15℃, 최고온도는 21℃ 이상으로 관리한다.
- 꽃봉오리가 백화되면 최고온도를 23~25℃로 낮춰 관리하며, 백화기에서 1차 생리낙과기 사이에는 주야간 온도 차이를 10℃ 이내로 하여 꼭지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최고온도가 높아 발아에서 만개까지의 일수가 짧으면 자방이 충실하지 못하여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물관리

- 보조가온을 개시할 때 물을 충분히 주면서 가온하는데 최소 일주일 동안 10a당 50톤 정도를 나누어서 관수하고, 발아가 70~80% 이상 이루어질 때까지 수상 살수도 겸하여 시설 내 습도를 높여준다.
- 하지만 외부 기온이 너무 낮고 한낮에 시설 내 온도가 20℃가 넘지 않을 경우 살수는 오전에만 실시하고 저녁에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순 발아 및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
- 낙화기까지는 잿빛곰팡이병 예방을 위해 7~10일 간격으로 10~15톤/10a 정도 소량 관수하여 잿빛곰팡이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

● 시비관리

- 보조가온 개시 7일 전(10a 기준) 질소 15kg, 인산 12kg, 칼륨 12kg 정도를 기준으로 시비하며, 나무 수령 및 수세를 고려하여 시비량을 가감한다.

● 병해충관리

- 전년도 응애류 발생으로 피해가 있었던 과원 중에 12월 이전 응애류 방제를 하지 못한 과원은 가온 개시 전 기계유유제 100배 정도 살포한다.
- 총채벌레가 시설 내 월동하면서 가온 후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총채벌레 발생이 많았던 과원인 경우 개화 직전 7~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적용 약제를 이용하여 방제한다.

※ 총채벌레는 약제저항성이 쉽게 발현되므로 꾸준한 예찰이 필요하며, 적용약제를 활용하여 방제할 시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가며 방제한다. 감귤원에

2~3월 만감류 재배관리 요령



양 철 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
농업연구사
TEL. (064)760-7412

1월~2월 레드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만감류 수확하는 시기가 되겠다. 과실 성숙기까지 물관리가 잘 이루어진 과원에서는 수확기에 높은 당도와 적당한 산함량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품질 과실(당도 13° Bx 이상, 산함량 1% 미만)을 출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또한, 3월부터는 과원정비 및 정지·전정 등의 작업도 이루지는데 이러한 농작업에 관하여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 온도관리

- 주간 온도는 최대한 자연 온도 또는 15° C 이하로 낮게 관리하며 야간온도는 열풍기가 있는 경우 2° C내외 설정(동해 예방)
- 열풍기가 없는 경우는 측창을 1m 정도 열어 공기 순환을 좋게 해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북서쪽 측창을 닫아 줌
- 발아 전까지 온도관리: 낮 온도 15℃~20℃ 내외 천·측창 완전 개방

■ 물관리

- **수확 전 관리**
  - 수세 유지와 감산 촉진을 위해 15일 간격으로 5톤/10a내외 물주기
    ※ 잔가지나 낙엽 등을 걷어내서 토양 표층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관수 생략함
  - 물주기는 맑은 날 오전에 실시

- **수확 후 관리**
  - 수확 후에는 3~5일 간격으로 2~3회 걸쳐 총 30톤/10a의 물을 충분히 관수
  - 수세 회복 이후에는 물을 적게 관리하여 화아분화 촉진

- 발아 전에는 절수 및 단수, 정지·전정 후부터는 20~30톤/10a 충분한 관수 실시

■ 수확

〈당도 13° Bx 이상, 산함량 1.0% 미만의 품질이 좋은 과실 수확〉

- ▶ 나무 아랫부분 과실은 크기가 작고 산함량이 높으므로 구분 수확
- ▶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확 후 과실끼리 부딪치지 않도록 운반
- ▶ 수확 시 과경지 끝에서 자른 후 꼭지 부분을 절단하여 과경지를 제거하면서 수확
- ▶ 저장할 경우, 수확 7일 전 스포르곤 또는 14일 이전까지 베푸란 2,000배 살포

● 수확 후 관리

- 천·측창을 모두 열어서 자연 온도로 관리
- 충분하게 물을 주어 나무 수세 회복 도모
- 수확 후 열매를 매단 끈은 모두 제거,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엽면시비 2~3회 실시
  ※ 맑은 날 오전에 엽면시비(수세가 약한 나무는 피해 주의)

<만감류 월별 품질> (시설 무가온재배 기준)

구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2월	2월	3월	2월
횡경(mm)	85.0	83.0	83.0	85.0
당도(° Bx)	13.5	12.6	12.7	13.5
산함량(%)	1.10	1.07	0.92	1.00

※ 위의 품질기준은 품종별 일반적인 수치이며 재배관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품종갱신 및 묘목 심는 방법

● 품종갱신

품종갱신 전, 반드시 그 품종에 대한 고유특성, 장·단점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 품종의 수확시기, 과원 입지조건 등 관리자 본인의 여건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이라 할지라도, 재배관리가 중요하며, 선택한 품종에 대한 꾸준한 믿음을 갖고 재배해야 그 품종의 고유특성이 제대로 발현될 것이다.

품종갱신 시 농가에서의 고려사항	
– 수량과 품질이 매년 떨어지는 경우 - 동해, 병해충 피해 등으로 고사주가 많을 경우 - 오래된 품종으로 최근 소비트랜드에 맞지 않는 경우 - 한 필지에 여러 품종에 섞여있는 경우	품종갱신을 준비하는 기간은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재식한 후에도 4~5년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묘목 심기**

▶ 묘목 심기 전 석회고토 및 용성인비를 주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수분관리

▶ 열간 3m, 주간 2m(수관 확대 후 가식주 제거) 간격으로, 구덩이를 만들어 준비하고 관수파이프를 이용하여 구덩이에 물과 흙이 충분히 들어가게 하면서 재식

● **묘목 전정 요령**

- 1년생의 경우 봄순과 여름순 마디 밑(기부에서 25cm정도 길이)으로 절단하여 순을 받음
- 2~3년생은 주지 연장지를 강하게 절단하고, 약한가지, 차지(車枝) 등 정리
- 순은 1아(芽) 1순(筍)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기부 6~7매에서 적심하면서 관리

● **시비 및 병해충 관리**

- 1회 시비량 복합비료(21-17-17)기준 6kg/10a 정도, 연간 7회(3월~9월) 소량 분시
- 순을 주로 가해하는 해충인 진딧물, 귤굴나방, 총채벌레 등을 예찰하며 수시로 방제



〈2년생 화분묘목〉



〈정지·전정 된 3년생 묘목〉



〈만감류 신규조성 하우스〉

■ 정지·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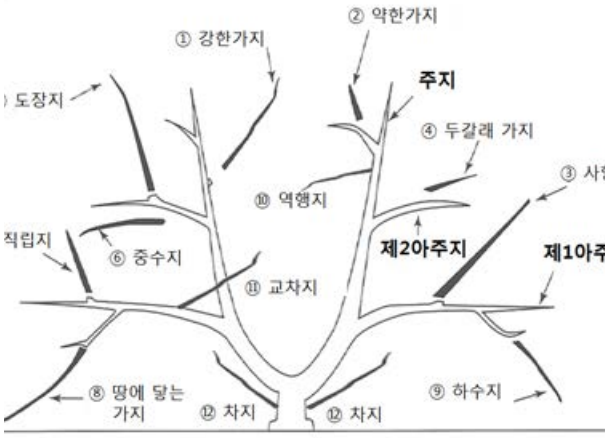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전정의 시기는 3월 상·중순에 실시하며 전년도 착과량과 나무 수세에 따라 전정의 시기와 정도를 다르게 한다. 밀식된 과원은 전정 전에 우선 간벌하는 것이 좋으며, 전정 시 유인작업을 병행하며 수형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나무상태에 따른 전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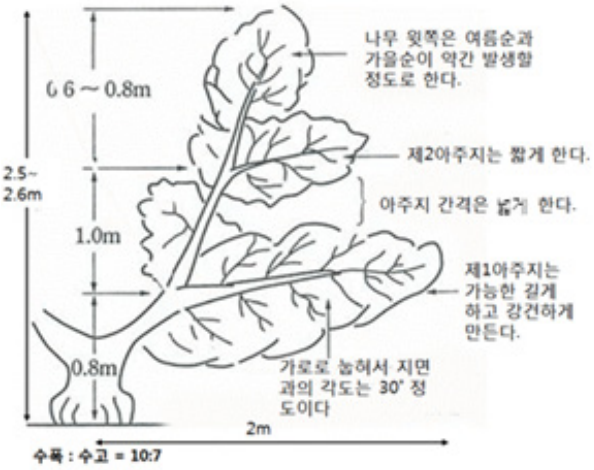
구 분	전정방향	전정시기	전정방법
풍작 예상 나무	꽃 피는 양을 줄임	3월 상순	절단전정, 강전정, 예비지 확보
평년작 예상 나무	적정 착과량 유지	3월 중순	절단, 솎음 균형
흉작 예상 나무	열매 달릴 가지 유지	발아 전까지	솎음전정, 과경지 정리

정지·전정 순서

① 남쪽에서 나무 전체를 관찰, 주지 3개(동, 서, 북)와 각 주지의 아주지 2~3개를 정함
② 나무 안쪽으로 향한 굵은 가지(內向枝), 또는 도장지(徒長枝)를 잘라 냄
③ 오른쪽 주지부터 왼쪽으로 돌면서 주지→아주지→측지 순서로 정리
④ 주지는 양분의 직진성을 고려하여 일직성인 가지를 연장지로 설정,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실시, 주지 연장지는 인근 가지보다 길게 남기며 꽃이 발생하지 않게 정리
⑤ 1주지당 아주지를 2~3개정도(간격: 30~40cm) 설정하고 아주지의 연장지 또한 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므로 가지 끝은 착과시키지 않는 것이 좋음
⑥ 측지 전정은 겹치는 가지, 늘어진 가지(下垂枝), 열매가 달렸던 가지(果梗枝), 죽은 가지 등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지를 만들어 줌



〈기본적으로 제거할 가지〉



〈주지 및 아주지의 배치〉

〈품종별 정지·전정 방향〉

품종	정지·전정 방향
한라봉	수세 유지를 위해 주지를 70° 정도로 세우고 아주지는 30° 정도로 비스듬히 길게 유지한다. 꽃따기, 열매솎기 등으로 착과량이 조절되면 자연스럽게 예비지가 확보되어 예비지 설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천혜향	꽃이 잘 피는 품종으로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 다음 해 결과모지가 되는 봄순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솎음과 절단전정을 병행하여 예비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품종	정지·전정 방향
레드향	나무의 모양은 개심자연형과 비슷하게 하며 주지는 60° 정도로 세우는 것이 좋으며, 발아수가 많고 신초 발생이 잘 되기 때문에 솎음전정 위주로 가볍게 전정을 해준다. 솎음전정과 절단전정 비율을 70:30으로 한다.
황금향	강전정, 절단전정 위주로 하면 도장지 발생이 많으므로 약전정, 솎음전정 위주로 실시하여 결실량을 다소 많게 하여 강해지려는 수세를 약화시킨다.
카라향	백화기인 4월 상·중순경에 실시하며, 나무모양은 기본적으로 개심자연형을 목표로 하며 가급적 강전정은 피하고, 수평지, 내향지, 늘어진 가지(下垂枝) 등을 솎음 위주로 가볍게 전정한다.

■ 시비 관리

(봄비료 기준)

품종별	성분량(kg/10a)			복합비료(질소기준) 시용량(kg/10a)			
	질산	인산	칼리	복합비료 (21–17–17)	전용복비 (8–7–6)	전용복비 (12–6–8)	인산칼리맞춤 (17–19–15)
한라봉	10.8	7.5	7.5	51.4(2.6포)	135.0(6.8포)	90.0(4.5포)	63.5(3.2포)
레드향	9	7	7	42.9(2.1포)	112.5(5.6포)	75.0(3.8포)	52.9(2.6포)
천혜향	6	7	3	28.6(1.4포)	75.0(3.8포)	50.0(2.5포)	35.3(1.8포)
황금향	10	6	7	47.6(2.4포)	125.0(6.3포)	83.3(4.2포)	58.8(2.9포)
카라향	9	6.8	4.5	42.9(2.1포)	112.5(5.6포)	75.0(3.8포)	52.9(2.6포)

※ 시비량은 질소비료 기준 시용량임

2~3월 감귤원 병해충 관리



김 동 순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감귤재배에서 2~3월은 노지감귤은 휴면기, 무가온 한라봉은 3월 하순 발아기를 거쳐 4월 하순 개화기로 이어지는 시기이며 가온재배(2월 상순) 한라봉은 2월 하순 꽃봉오리가 출현하고 3월 중순 개화기를 맞는 시기이다. 또한 시설재배 레드향(감평)은 3월 하순 발아하고 4월 중순 개화기로 이전하는 시기이다.

병해충관리 중점사항은 노지감귤의 경우 월동 또는 월동직후 귤응애와 월동병해충 방제, 비가림 재배의 경우 개화기 귤응애와 총채벌레류, 낙화기 잿빛곰팡이병, 봄순의 진딧물류, 기타 누른무늬병(황반병)이라 할 수 있다.

■ 노지감귤 월동기 방제체계

● 귤응애 등 월동해충

대부분 과수에서 월동기 방제체계는 2월 하순(휴면기) 기계유유제와 4월 상순(발아기) 석회유황합제 살포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감귤에서는 2월 하순 기계유유제 50~60배와 3월 하순 석회유황합제 50~80배 살포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일반재배에서 깍지벌레 피해의 문제가 적고 귤응애 방제 목적으로는 고농도 살포가 필요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5월 상순 기계유유제 120~150배 살포로 대체하고 있다.

봄철 귤응애는 수관 내부 잎이 뭉쳐 나 있는 가지에서 발견되고 알 비율이 높다(그림 1). 따라서 약제살포시 수관내부 잎 뒷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살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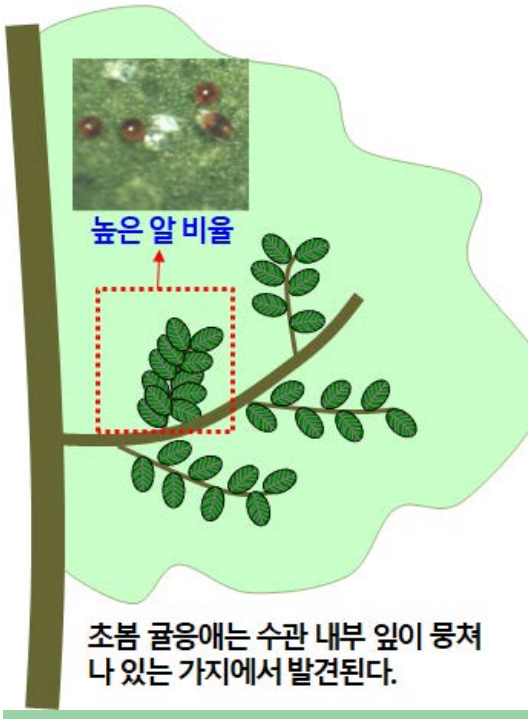


그림 1) 초봄 귤응애 서식 위치

● 월동병해 방제

통상 월동병해 방제목적으로 3월 중하순 석회유황합제(50~80배)를 살포한다. 검은점무늬병(그림 2), 더뎅이병(그림 3), 궤양병 등 병반을 표적으로 하며, 병해뿐만 아니라 월동 깍지벌레류에도 부분적인 방제효과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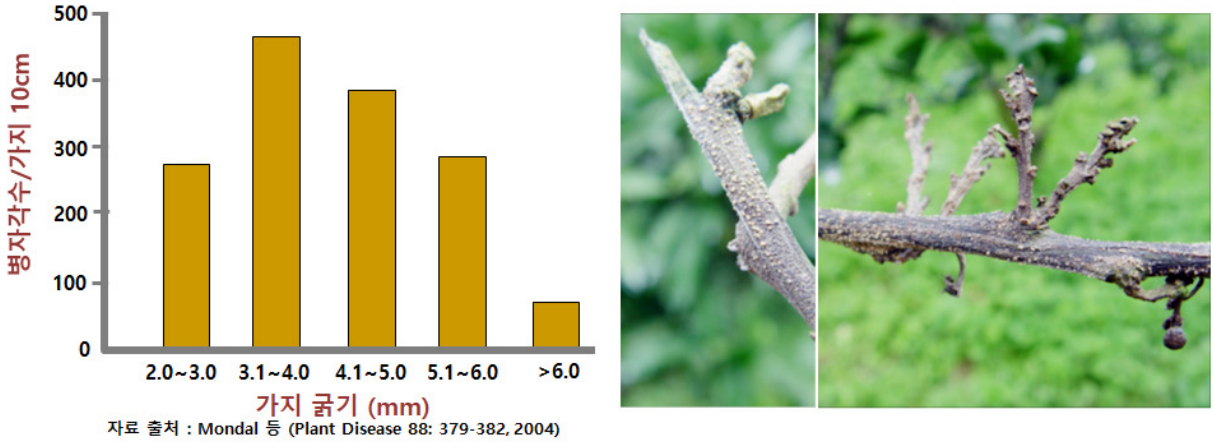


그림 2) 삭은 가지 굵기에 따른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병자각 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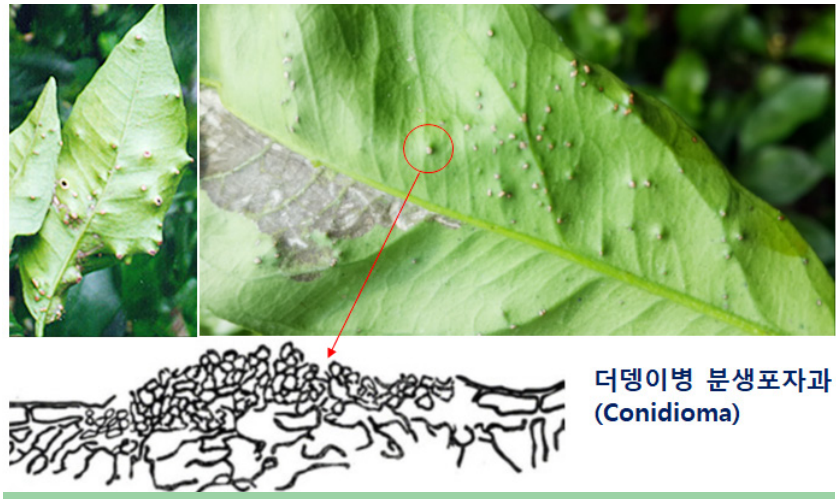


그림 3) 더뎅이병 월동병반과 분생포자과 포자형성 모식도

검은점무늬병 포자(병자각)는 주로 3~6mm 삭은 가지(그림 2)에서 형성됨으로 전정시 미리 삭은 가지를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뎅이병도 전년도 잎에 생긴 월동병반에서 포자가 형성되어(그림 3) 전파된다.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받는 과원에서는 월동기 석회유황합제뿐만 아니라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강우상황에 따라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3~4월호 상술 예정).

■ 비가림 만감류 병해충 관리전략

● 총채벌레류

만감류 총채벌레류 방제에서 2~3월은 개화기 피해를 대비하여 미리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이다. 개화기에는 하우스 밖 야생기주에서 번식한 집단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부 월동 집단이 지면 잡초에서 증식하고, 꽃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준다. 총채벌레

류는 약 10℃ 이상이 되면 번식활동이 가능하고, 15℃ 이상에서 비행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과원에서는 10℃ 이상이 되는 시기에 토양살충제(미생물 백강균, 입제 살충제)를 처리하여 미리 발생밀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기타 잡초 제거 등 번식처를 없애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만일, 전년도 늦가을 총채벌레류 발생이 적었다면 월동밀도가 형성되지 못하여 개화기에 피해를 줄 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 할 것이다.

조기가온 만감류는 3월 중순 개화기가 도래함으로 귤응애, 총채벌레, 잿빛곰팡이병 방제시기에 해당된다. 귤응애는 개화 20~30% 시기에 기계유유 100~150배로 적기 방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화기 총채벌레, 진딧물류, 잿빛곰팡이병 등 방제시기와 겹쳐서 처방이 다소 복잡해질 때는 발아후 기계유유제를 미리 살포하여 여유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가온 재배에 맞추어 4~5월호에 소개할 것이다.

● **잿빛곰팡이병**

저장감귤이 아닌 생육기 잿빛곰팡이병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과실 표면에 떨어진 꽃잎에 곰팡이가 생겨 피해가 발달한다. 과실 표피세포 층에 얇게 손상을 주게 되고, 나중에 딱정이 증상(사비, 코르크 상처), 손상세포 부위의 이상증식으로 인한 융기 증상으로 나타난다.(그림 4).

따라서 우선적으로 환풍, 꽃잎 털어내기 등 재배적 조치를 취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꽃잎이 변색되는 시기 약제를 살포한다. 꽃잎이 떨어지기 전 미리 약제를 과실 표면에 도포시켜 놓아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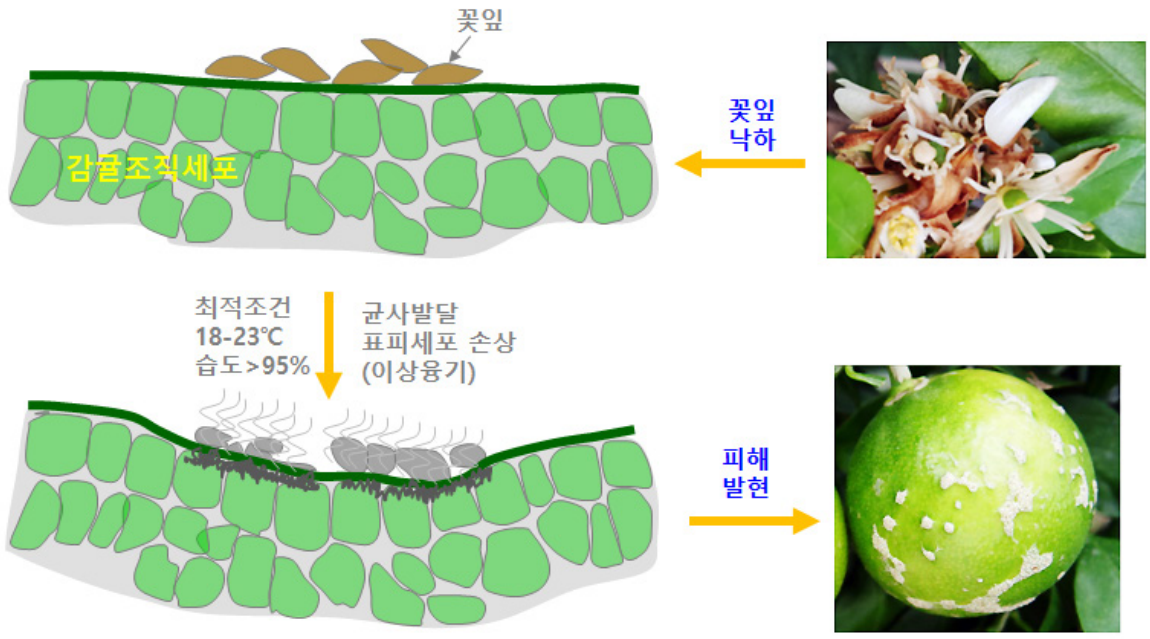


그림 4) 잿빛곰팡이병 감염 및 과실병징 발달 모식도

잿빛곰팡이병은 약제 저항성이 쉽게 유발됨으로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교호살포)해야 한다.

감귤에 등록된 계통으로 '다', '라', '마', '사' 등이 있으므로 순서를 정하여 최소한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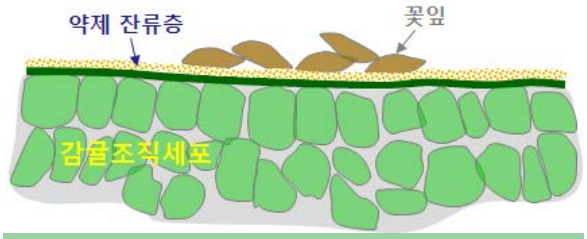


그림 5) 보호성 약제 잔류층 모식도

- 다 : 펜티오피라드(다2)와 플룩사피록사드(다2)은 침달성을 갖고 있는 성분으로 잿빛곰팡이병 전문약제로 쓰인다(침달성 : 약제성분이 조직 내로 침투하는 성질). 플루아지남(다5)은 독특한 작용기작으로 다른 계통 살균제와 교차저항성 위험이 적다. 다만, 고농도로 사용함으로 약해 위험성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기계유유제와 혼용 또는 근접살포가 불가능하다.

- 라 : 사이프로디닐(라1)은 침달 및 침투성이 있으며 포자발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발아관 신장과 초기 균사생장을 억제한다.

- 마 : 플루디옥소닐(마2)은 항생물질인 피롤니트린(pyrrolnitrin)으로부터 유도된 물질로 화학적으로 안전하여 엽면 살포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포자발아, 발아관 신장 및 초기 균사생장 억제 작용을 한다. 이프로디온(마3)은 오래 전부터 잿빛곰팡이병 전용약제로 사용해온 성분이다.

- 사 :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사1)는 다양한 병해방제 약제로 쓰이며, 잿빛곰팡이 약제로 쓰이는 성분이다. 펜피라자민(사3)와 펜헥사미드(사3)는 침달성이 있는 약제로 고농도에서는 포자발아를 억제하며, 일반 농도에서 발아관 및 균사 생장에 강한 억제 작용을 나타낸다.

● 누른무늬병(황반병)

비가림 재배는 강우가 차단되기 때문에 병해 발생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강우 없이 전염 가능한 잿빛곰팡이병과 더불어 누른무늬병(황반병)의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플로리다에서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계유유제 또는 구리제 1~2회 살포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주에서 심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른무늬병은 낙엽에서 월동하여 봄철 포자가 형성되어 공기를 통하여 전파(전반)된다. 전반된 포자는 잎뒷면 표면에서 착생상태로 번식하고 기공을 통하여 전염된다(그림 6).

잎 뒷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살포해야 하며, 봄순, 여름순, 가을순 전개 완료 1개월 이내 적기 방제한다(구리제 또는 기계유유제). 발생이 심한 과원의 경우 개화 전후 구리제를 살포한다. 기타 포자가 누출되어 전파되기 전 낙엽이 빨리 썩어 없어지도록 수확 후 지면에 석회(lime)나 요소를 살포할 수 있다. 감귤원예

그림 6. 감귤 누른무늬병(황반병) 연간 생활환(무가온 만감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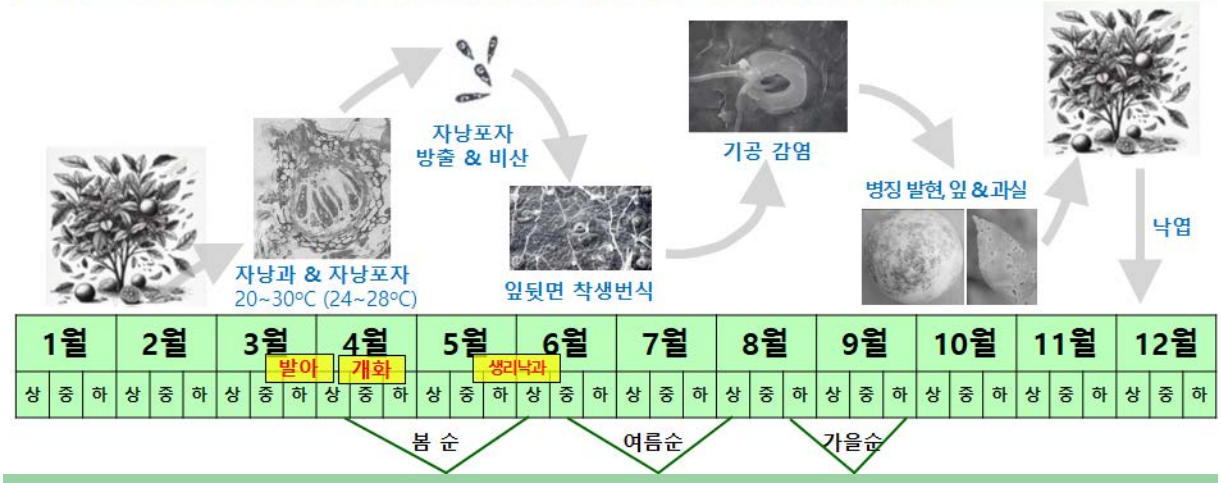


그림 6) 감귤 누른무늬병(황반병) 연간 생활환(무가온 만감류 기준)



브랜드감귤 생산을 위한

토양과 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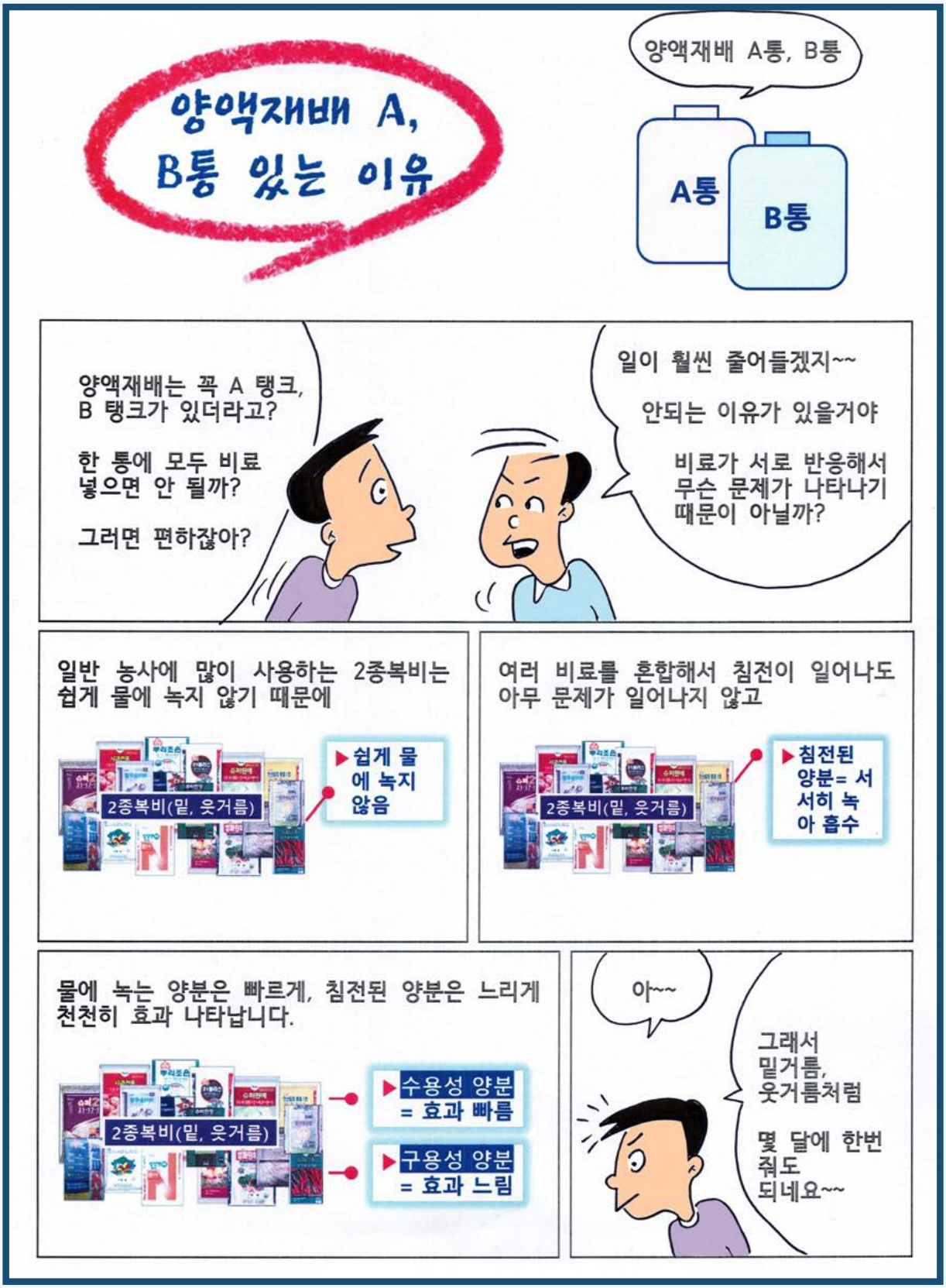
1. 양액재배 A, B통 있는 이유
2. 칼슘제와 오복이 혼합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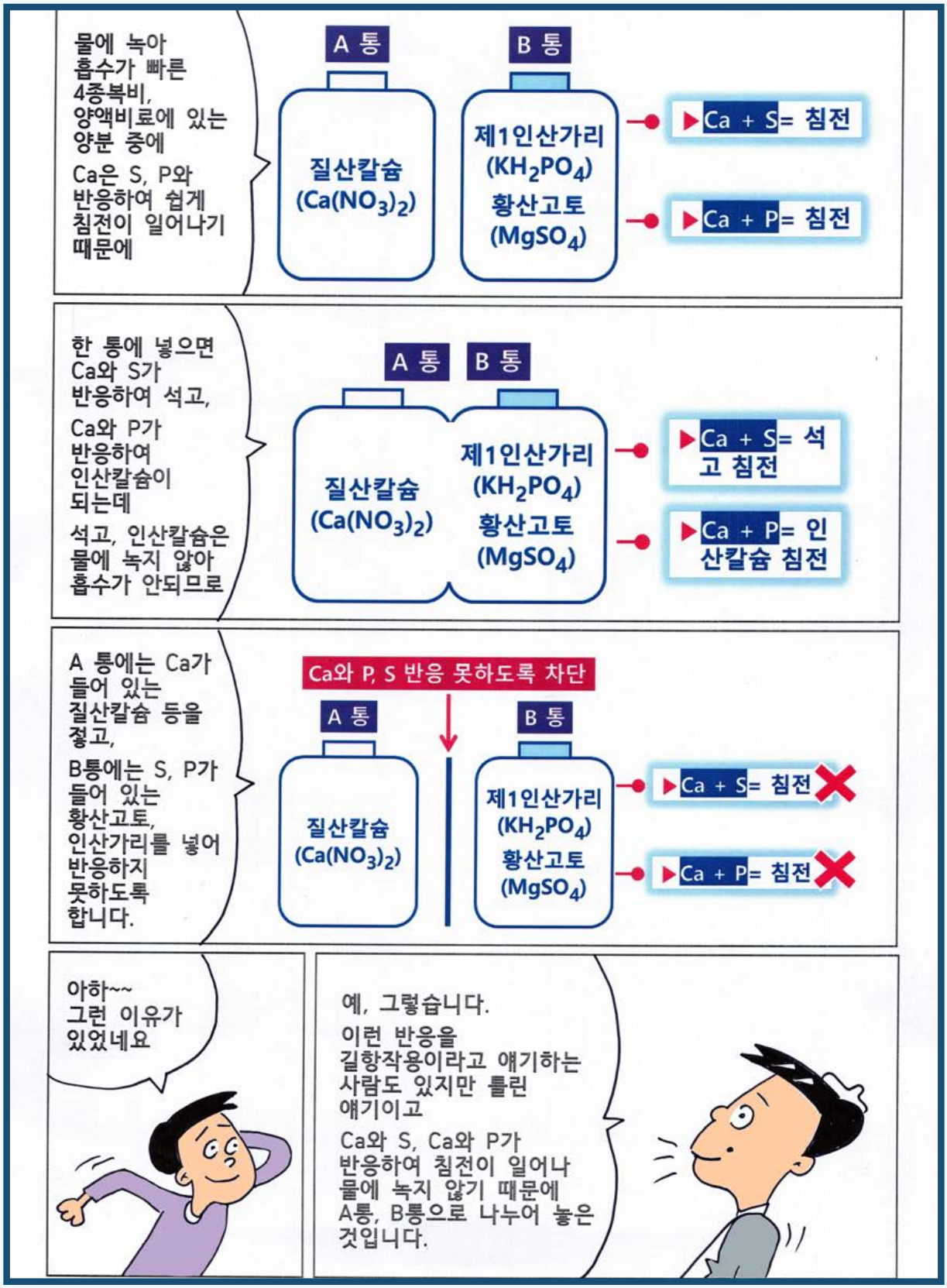
현 해 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토양 · 비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흙과 비료와 벌레이야기」 밴드에서 질문 바랍니다.
※ 유튜브 「흙과 비료이야기」 를 참고하세요.

양액재배 A, B통 있는 이유



양액재배 A, B통 있는 이유



칼슘제와 오복이 혼합 주의!



칼슘제와 오복이 혼합 주의!

칼슘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되는 양분은 ① 황, ② 인, ③ 규소인데 어렵지만 화학반응에서 침전반응을 설명한 것이며,

엽면시비용 | 혼합 반응식 | 침전형태

Ca + S → $CaCl_2+H_2SO_4$ → $CaSO_4$ + 2HCl

Ca + P → $3CaCl_2+2H_3PO_4$ → $Ca_3(PO_4)_2$ + 6HCl

Ca + Si → $CaCl_2+SiO_2$ → $CaSiO_3$ + Cl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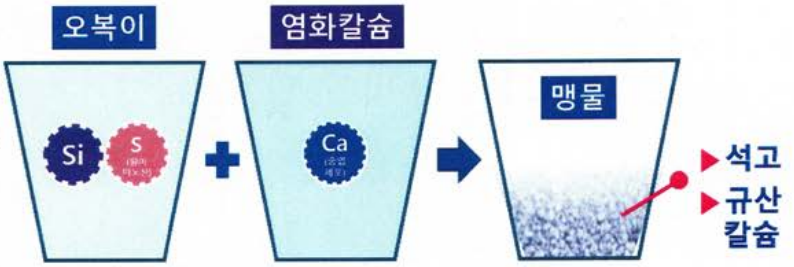
쉽게 설명하면,
① 칼슘은 오복이에 들어 있는 황과 반응하여 조각할 때 사용하는 석고
② 규산과 반응하여 건축자재인 규산칼슘 보드가 되므로



S (황아니노산) + Ca (중엽세포) → ←석고

Si + Ca (중엽세포) → ←규산칼슘

오복이와 칼슘제를 혼합하면 위에 있는 물은 맹물이 되고 밑에 침전물을 석고, 규산칼슘으로 변합니다.



아하~~
아무 거나 혼합하면 둘 다 효과가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복이와 칼슘제는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료의 화학 반응은 일반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 받을 때 질문하고 원리를 잘 이해해서 혼합하면 안 되는 비료에 대해 지식을 쌓아가세요~~





농업인에게 유익한 법률상담

사례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제주지부
(주소 :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2층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 경 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백경원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28일,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가 도입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하고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에 대하여 그 등장 배경, 상실 청구권자 및 상실 청구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을 상속인, 망인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집, 예금 채권과 같은 '적극 재산'을 상속함은 물론,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 보증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포괄적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2.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민법은 누가 어떠한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제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이고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2호(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만일 선순위(앞선 순위) 상속인들이 있고 그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다음 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아버지인 을과 딸인 병과 아들인 정이 있고, 그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다면 병이 갑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병과 정이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인 갑의 아버지인 을이 갑의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3.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청구)가 신설된 배경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아래 다섯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그런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피상속인)를 유기·방임·학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재난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여 자녀가 사망한 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 자녀의 재산상속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되자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구씨가 어린 시절 구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친모가 나타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을 주장하자, 이와 같은 상속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고 법 감정에 반한다며 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피상속인의 상실 청구(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다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 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으로서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 제외) 및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와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유언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항 및 제4항)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①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위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법 제1004조의2 제5항 및 제6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권자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감글원에

세상이 보이는 심리상담실

사례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주소 : 서귀포시 천지로 22, 상담 전화 : 010-3752-9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 후
심리상담사
칼럼니스트
제주일보 논설위원

▲ 열 다섯 번째 상담사례 : 걱정하지마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요즘 어딜 가나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첫째는 인구와 대학에 관한 이야기다. 대학의 정원은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고교 졸업생은 약 47만 명이다. 100% 대학을 간다고 해도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겨우 26만 명인데 이 수치도 매년 줄어든다. 앞으로 대학이 유지될 것인가?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늘은 "괜찮아" 라는 위로의 글을 전하고 싶다.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돈 들여 공부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변화는 '저성장, 재정난, 인구병' 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한국이 맞닥뜨린 사상 초유의 변화다. 청년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포기는 시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부모 세대는 장수하게 되었지만, 은퇴하며 생활 곤란에 빠져 장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는 먼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라는 말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와 살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조만간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이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변화에 둔감하면 위기는 금방이다. 즉,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탈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둘째, 나의 위기를 분석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 셋째, 지혜로운 판단을 하였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운이다. 결실을 맺으려면 운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 판단, 실천, 운 네 가지 모두 있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게 된다. 우리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시절,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은 " 괜찮아, 잘될 거야, 잘되고 말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의 말이다. 한마디 건네받은 위로가 나의 마음을 춤추게 하고,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려 준다. 상담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사랑, 인정,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나의 어려움을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제자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제자에게 "뭐가 그리 고마우냐" 라고 물어보면, "뭐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다" 라고 한다. 누군가의 힘듦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독한 아픔 속에서 새싹 같은 꿈이 깨어나 새로움이 찾아온다. 오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나를 소모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반대로 활용하여 힘찬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그 감정과 대면해 주체적으로 그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희망한다.

▲ 열 여섯 번째 상담사례 : 열심히 보다 적당히 살아보자

오늘은 상담실에서 만난 40대 직장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직장 내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전력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윗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굳이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될 일도 빨리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찍 성공한다. 그러나 50대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 조급한 성격 등으로 인해 심근경색 등의 신체적 건강의 적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급한 성격과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완벽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빨리 도달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실패한 것이다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다. 일을 빨리, 완벽하게 해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을 누리며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자유로운 휴식의 세계가 열린다. '열심히' 보다 '적당히' 사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이다. 의무나 규칙에 얽매인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적당한 삶이 된다. 나는 과거 '반드시 ~ 해야 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와 같은 규칙을 지켰다. 그 결과 일정한 성과는 얻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괴로울 때가 있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뭐든 좋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게으름 피우자' 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 즉,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 괜찮아' 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을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다.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을 전부 잃은 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바보처럼 약간은 모자란 듯 힘을 빼고 대충 하는 것도 꽤 괜찮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아, 그렇구나' 라고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나 또한 40대 직장여성처럼 회사원이었던 시절 주말, 휴일 상관없이 일에 몰두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었다. 그래서 은퇴하고 사무실을 차리면서 다른 건 몰라도 '휴식시간' 만큼은 반드시 정해두고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느긋한 휴식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은 독서와 글쓰기로 채워지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휴식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갈수록 심리 정서적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피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할 일이 많은 시기에 현재 이 순간을 즐기면서 휴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차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것도 좋다. 저마다의 생김새가 다르듯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시도해 보고,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꽤 괜찮은 인생이라 격려해 주고 싶다. 감귤원예

조합 및 조합장 주요동정(2024. 11. 01. ~ 2024. 12. 31.)

일 자	주 요 내 용	장 소
11월 01일	영농지도분과위원회	본점 대회의실
	서귀포시지점 하효대신작목회 개장식	작목반 선과장
	판매분과위원회	본점 대회의실
11월 02일	한경면연합청년회 창립기념식 및 한경면연합청년회장기 족구대회	한경체육관
	국제라이온스협회354-G(제주)지구 제4지역 합동월례회 및 단합대회	표선생활체육관
	제주밭담축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서귀포시 소상공인주간 박람회	자구리 문화예술공원
11월 03일	성산고등학교 총동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성산고등학교 운동장
11월 04일	NH농협제주본부 준공식	농협제주본부
11월 05일	위미지점 감귤공선출하회 소비지 유통조사(11/05~06)	충북원예농협APC 외
	성산지점 단지협의회, 부녀회 감귤판촉홍보(11/05~07)	대구경북지역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안덕지점)	지점 회의실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애월체육관
	도지사와의 농정간담회	4유통센터
11월 06일	서귀포시감귤단지협의회 도외시장 조사(11/06~07)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일원
	제11차 3인심사역 협의체 회의	상임이사실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중문지점)	지점 회의실
11월 07일	서귀포시지점 대신작목회 도외시장조사(11/07~08)	울산농산물도매시장 일원
	서부유통사업소 공선출하회 소비지 유통조사(11/07~08)	충북원예농협 거점APC외
	조천지점 신안작목반 수출작업(홍보)	작목반 선과장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서귀포시지점)	지점 회의실
	광주원예농협 APC 견학, 임원과의 간담회	8유통센터
	상주원예농협 대의원 APC 견학	5유통센터
11월 08일	중문지점 대포.대성감귤작목반 도외시장조사(11/08~09)	대전 오정동농산물도매시장
	성산지점 한아름시설작목반 도내 선진지 견학	도내 일원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대정지점)	지점 회의실
11월 09일	제주시 애월읍청년회 창립기념식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1월 11일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남원지점)	지점 회의실
11월 12일	서귀포시지점 하효작목회 도외시장 조사(11/12~13)	가락농산물도매시장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조천지점)	지점 회의실

조합 및 조합장 주요동정(2024. 11. 01. ~ 2024. 12. 31.)

일 자	주 요 내 용	장 소
11월 13일	제주감귤박람회 개막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1월 14일	남원지점 청년회 도내 선진지 견학	도내 일원
	브랜드감귤대학총동창회 19기 임시회의	본점 대회의실
11월 15일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퇴직직원 동인회(감동회) 회원 만남의 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후원의 날	명도암참살이교육관
11월 16일	제주향교 제2회 양로연 행사	제주시 서문로 43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여성농민 추수한마당 및 후원의 날	명도암참살이교육관
11월 17일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조천운동장
11월 18일	동부유통사업소 공선출하회 소비지 유통조사(11/18~19)	충북원예농협 거점APC 외
	제12차 이사회	본점 소회의실
	유통권역별 사업소장(센터장), 위미지점장 회의	본점 대회의실
11월 19일	서귀포시지점 호근번영작목회 도외시장 조사(11/19~20)	익산농산물도매시장 일원
	제12차 이사회	본점 소회의실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애월지점)	지점 회의실
	제주감귤박람회 폐막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1월 20일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한림한경지점)	지점 회의실
	농협중앙회 대의원 간담회	서울 서대문구
11월 21일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대의원회) 도외연수(11/21~22)	서울(양재동 및 가락동)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제주시지점)	지점 회의실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
	농민신문사 제3차 임시대의원회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막식	aT센터 제1전시장
11월 22일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위미지점)	지점 회의실
	한림한경지점 청년회 영농교육	제주농업기술원
11월 23일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서귀포국민체육센터
11월 25일	한림한경지점 부녀회 불우이웃돕기 떡국행사	지점 회의실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성산지점)	지점 회의실
	남원지점 조합원 영농교육	지점 회의실
	수출통합조직 간담회(농식품부국장 주재)	8유통센터
	한림한경지점 청년회 임시총회	지점 회의실

조합 및 조합장 주요동정(2024. 11. 01. ~ 2024. 12. 31.)

일 자	주 요 내 용	장 소
11월 25일	군산원예농협 임원과의 간담회	애월지점 회의실
11월 26일	남원지점 고품질감귤 유통을 위한 소비지 판촉	광주 각화도매시장 외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표선지점)	지점 회의실
	제주시지점 부녀회 물품봉사 나눔 활동	제주요양원
11월 27일	맞춤형 현장 영농교육 5회차(동제주지점)	지점 회의실
11월 28일	제4차 대출심사위원회	상임이사실
11월 29일	제1차 임시대의원회	본점 대회의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 감귤보내기 행사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11월 30일	2024 감귤데이 기념행사	성수동(언더스탠드 애비뉴)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 도외견학	양재동 및 가락동
12월 05일	제주농협키위협의회 임시총회	농협제주본부 중회의실
	제2차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이사회	농협제주본부 중회의실
	예래동 송년의 밤 및 워크숍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남부지회 회원대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2월 06일	남원지점 산남단지협의회 분기회의	지점 회의실
12월 08일	서귀포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서귀포앞 숲섬
12월 09일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 도외선진지 견학(12/09~11)	구미지역
12월 11일	2024 제주경총의 밤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홀
	표선지점 청년부 영농교육 및 송년회	지점 회의실
12월 12일	제13차 이사회	본점 소회의실
	화성시농협 우수직원 워크숍	제2유통센터 외
	유통권역별 사업소장(센터장), 위미지점장 회의	본점 소회의실
	애월감귤단지협의회 임시총회	지점 회의실
	서귀포시지점 부녀회 영농교육 및 송년회	동담제주산돼지고기전문점
12월 12일	표선지점 부녀회 임원회의	지점 회의실
12월 13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제2차 임시총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단지협의회연합회 임시총회	표선지점 회의실
	성산지점 청년부 임시총회	지점 회의실
12월 14일	중문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
12월 16일	4/4분기 노사협의회	본점 소회의실

조합 및 조합장 주요동정(2024. 11. 01. ~ 2024. 12. 31.)

일 자	주 요 내 용	장 소
12월 16일	제주시지점 경제사업장 간담회	제주시지점 경제사업장
	부녀회연합회 김치나눔행사	5유통센터
12월 17일	한국무수출(주) 제4회 임시이사회	성산일출봉농협 회의실
	표선감귤단지협의회 영농교육 및 송년회	청송가 식당
	제2차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임시총회	제주축협 아라지점 회의실
12월 18일	(사)한국새농민 서귀포시회 송년행사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
	청년부연합회 임시총회	본점 소회의실
12월 19일	중문지점 부녀회, 청년부 이웃돕기 물품기탁 행사	중문동사무소 외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녹색생활화운동 평가대회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
	리스크관리위원회	상임이사실
	안덕감귤단지협의회 송년회	머그낭 식당
	중문지점 청년부 운영위원회	지점 회의실
	동제주감귤단지협의회 임시총회 및 송년회	지점 회의실
12월 20일	남원지점 청년회 송년의 밤	지점 회의실
	서귀포시감귤단지협의회 영농교육 및 송년회	육품참숯소갈비살 서귀포점
	애월지점 청년부 임시총회	지점 회의실
	새농민회 간담회	하영횟집
12월 23일	남원감귤단지협의회 송년의 밤	육값하네식당
	동제주지점 청년부 임시총회 및 송년회	지점 회의실
12월 26일	제14차 이사회	본점 소회의실
	정년퇴임식	본점 대회의실
12월 27일	제3차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제주본부 회의실
12월 27일	조천지점 협동조직 합동 송년회	지점 회의실
	제2차 감귤의무자조금 대의원회	농협제주본부 회의실
	농협제주본부장 이임식 및 송년회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
	서귀포시지점 청년부 영농교육 및 송년회	명가솥뚜껑 서귀포흑돼지
	안덕지점 부녀회 송년회	머그낭식당
12월 30일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 송년행사	향원복집
12월 31일	2024년도 종무식	본점 대회의실
	제32회 성산일출축제	

산지-소비지간 상생 발전을 위한 마케팅 협의회 개최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10월 30일(수)에 영남농산물 물류센터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주감귤농협 서부유통사업소 제4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산지-소비지간 상생 발전을 위한 마케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은 "평소 제주감귤을 사랑해 주시는 소비지시장 관계자분들께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주감귤농협과 영남 농산물 물류센터의 원활한 유통과 유대관계 확립을 통해 감귤산업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제주감귤농협은 감귤전문농협으로서 생산 및 판매까지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필요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감귤산업 발전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감귤농협 사업부문별 분과위원회 개최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관련 사업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10월 31일 ~ 11월 01일 양일간 개최된 분과위원회는 각 사업부문별 분과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관련 의견 수렴 및 검토, 우리농협의 수익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실익증진 방안 등 조합사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재분과위원회



신용분과위원회


영농지도분과위원회


판매분과위원회

제주감귤농협, 오영훈 도지사와의 노지감귤 수확현장 방문 수확체험 및 농정 간담회 실시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11월 05일(화) 14시에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농가 과원에서 노지감귤 수확현장 방문 수확체험 및 감귤산업 발전과 제주감귤농협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 개진 등을 위하여 제주감귤농협 4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감귤농협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와의 농정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로는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 외 임직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외 도청 간부공무원 및 고광덕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 이춘협 농협경제지주 부본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정 간담회에서는 제주감귤농협 일반현황 발표, 농업 정책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제주감귤농협의 건의 사항 발표 및 제주감귤산업의 문제점과 중점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주감귤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많은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날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은 “평소 제주감귤을 사랑해 주시는 오영훈 도지사 및 관계자분들께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주감귤농협과 농업 정책 관계자의 원활한 유대관계 확립을 통해 감귤산업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제주감귤농협은 감귤전문농협으로서 생산 및 판매까지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필요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감귤산업 발전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감귤농협, 2024년산 노지감귤 수출 개시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무역사무소(사업소장 김재우)는 11월 5일(화) 캐나다 53톤, 7일 말레이시아 18톤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4년산 노지감귤 수출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제주감귤농협은 정부 물류비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 캐나다 등지에 안정적으로 감귤을 수출해왔으나, 올해부터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고 생산량 감소로 내수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전년산 노지감귤 수출 1,564톤 대비 10.4% 감소한 1,400여 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12월까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등 10여 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송창구 조합장은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었지만,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감귤수출 핵심주체로서 앞으로도 제주 감귤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수행에 앞장서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애월지점 상호금융 우수고객 감사패 수여
(애월지점 김원남 조합원)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애월지점(지점장 오봉준)에서는 제 9 회 금융의 날을 기념해 11월 27일 강석종 이사와 강규배 애월감귤단지협의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애월지점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우수고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날 행사는 상호금융 발전을 이끌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로 마련되었으며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감사패와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조천지점 부녀회 메밀 떡국 판매 사업 및 기부활동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조천지점(지점장 임성준) 부녀회(부녀회장 강정임)는 11월 06일(수) 지역농산물인 메밀 홍보 및 소비촉진과 바른 먹거리를 위한 메밀을 이용한 메밀떡국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조천지점(지점장 임성준) 부녀회(부녀회장 강정임)와 청년회(청년회장 이용덕)는 메밀떡국 판매 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를 24년 12월 19일 조천읍 관내 장애인 복지 시설 “아가의 집” 을 방문하여 올해사랑의 기부를 진행하였다.

조천지점 부녀회와 청년회에서는 작지만 사랑 나눔을 통해 지역상생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감귤농협 2024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개최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11월 29일 제주감귤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고품질감귤 출하를 위한 결의문 채택과 2024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현황,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선임 등을 보고하였고 의결사항으로 조합정관 일부 개정(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송창구 조합장은 "오늘 임시대의원회는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날로써 변화와 혁신, 소통, 성장을 목표로 하여 경영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기반 구축으로 조합원의 사회·경제·문화적 실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으로 대외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였다.





제주감귤농협 노·사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지난 12월 16일 제주감귤농협 소회의실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4년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은 2020년 2월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체결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그동안 노·사간의 대립으로 이어진 불화를 종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결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개월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주감귤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여 제주감귤농협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송창구 조합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노·사간 양보와 타협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 하였으며 일하기 좋은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동주 지회장은 “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제주감귤농협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감귤농협 부녀회연합회 농촌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
(김치만들기 및 나눔활동)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부녀회연합회(회장 강정임)에서는 12월 16일(월) 제주감귤농협 제5유통센터 회의실에서 부녀회연합회 회원 및 조합 임직원, 기부처인 사회복지법인(희망모아주간보호센터, 아가의집, 성요셉요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 만들기 및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나눔행사는 기부문화 확산 및 추운겨울 관내 지역 복지지설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었으며, 물품(사랑의 김치 500포기)은 기부처에 각각 전달되었다.

제주감귤농협 부녀회는 도내 13개 지점에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농촌·농협 이해증진 및 농정교류 협력을 통한 농촌사랑운동 실천은 물론 여성감귤농업인의 권익향상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감귤농협 중문지점 청년회, 부녀회 이웃돕기 물품 기탁

12월19일(목)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중문지점 청년회(회장 양두선), 부녀회(회장 김효순)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웃에 따뜻한 나눔 할동에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간벌사업과, 농약폐품 수집, 한마음대축제시 상금 등을 모아 중문동, 예래동, 대천동에 310만원 상당에 물품을 기탁하였다. 양두선 회장과 김효순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래동


대천동


중문동

2024년 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은상 수상
(극조생부문 중문지점 김대윤, 조생부문 서귀포시지점 강창익)



2024년 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극조생부문 중문지점 김대윤 조합원과 조생부문에 서귀포시지점 강창익 조합원이 은상에 선정됐다.

감귤품평회는 품질경연을 통한 제주감귤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감귤 재배농가의 자긍심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엔 도내 지역농협과 제주감귤농협, 농업단체등의 추천을 받은 110여 농가의 우수감귤이 출품됐다.

제주감귤농협, 사랑의열매에 임직원 성금 900만원 기부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오는 12월 26일, 조합장실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이하 제주사랑의열매)에 임직원이 마련한 성금 9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감귤농협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도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제주감귤농협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제주사랑의열매 강지언 회장은 "제주감귤농협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소중한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 고 전했다.

제주감귤농협은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감귤농협, 2024년 직원 정년퇴임식 개최



제주감귤농협에서는 12월 26일(목)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퇴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년퇴임식은 좌승룡 상무, 김태길 상무, 양준석 상무, 현석종 상무, 이현숙 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년퇴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농협의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로패와 꽃다발, 기념품 등이 전달되었으며, 퇴임 직원들의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디지털 액자 증정과 동료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져 감동을 더했다.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은 "정년퇴임하시는 다섯 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제주감귤농협이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년퇴임 직원들은 "제주감귤농협의 임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35여 년간 근무했던 제주감귤농협을 떠나게 되어 아쉬움도 있지만 퇴임 후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조합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하였다.

제주감귤농협 정년퇴임 직원 프로필



● 좌승룡(M급) 상무

▶ 한경면 신창리 출신으로 1989년도에 입사한 후 35년 동안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합사업 확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안덕지소장, 조천지점장, 신용상무, 서제주지점장, 동제주지점장, 제주시지점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감귤산업발전 및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한 공로와 농산물 유통 개선, 풍수해보험 캠페인 추진, 농업재해보험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농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농협중앙회장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조합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제주감귤농협 정년퇴임 직원 프로필



● 김태길(M급) 상무

▶ 조천읍 와흘리 출신으로 1989년도에 입사한 후 35년 동안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합사업 확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조천지소장, 표선지소장, 중앙로지점장(現연동지점), 동제주지점장, 서제주지점장, 서귀포시지점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감귤산업발전 및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한 공로와 저원가성 적립식 예금 추진,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 표창, 교육연수원장 표창, 조합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 양준석(3급) 상무

▶ 서귀포시 상효동 출신으로 1989년도에 입사한 후 35년 동안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합사업 확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무역사무소장, 유통사업단장, 애월지점장, 대정지점장, 남원지점장, 동문로지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감귤산업발전 및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한 공로와 감귤 수출 촉진, 공동브랜드 출하, 과수산업육성,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확대 추진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 표창, 경제 대표이사 표창, 제주지역본부장 표창, 농협은행장 표창, 조합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제주감귤농협 정년퇴임 직원 프로필



● 현석종(3급) 상무

▶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1989년도에 입사한 후 35년 동안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합사업 확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연로지점장, 신용상무, 애월지점장, 대정지점장, 한림한경지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감귤산업발전 및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한 공로와 상호금융채권관리 추진 우수, 연금수급계좌 추진 우수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 표창, 시지부장 표창, 조합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 이현숙(5급) 과장

▶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1989년도에 입사한 후 35년 동안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합사업 확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한림한경지점, 제주시지점, 중앙로지점(現연동지점), 애월지점, 대정지점, 동부유통사업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귤산업발전 및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한 공로와 상호금융 특별추진 우수, 고객서비스 향상, 농가부채대책지원 우수, 보험 및 상호금융대출 증대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 표창, 신용 대표이사 표창, 제주지역본부장 표창, 교육원장 표창, 조합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사무소별 전화번호

사 무 소	전 화 번 호	
본 점	TEL 064)739-5401~2, 5404	FAX 064)739-5406, 5440
서귀포시 지점	TEL 064)732-5501~4 TEL 064)763-8314~5 (구판장)	FAX 064)732-5703, 5506
중문 지점	TEL 064)738-8501~3 TEL 064)738-8507 (구판장) TEL 064)738-5401~2 (하우스자재판매장)	FAX 064)738-8504 FAX 064)738-5403
제주시 지점	TEL 064)755-0141~3 TEL 064)756-0145~6 (농자재판매장)	FAX 064)756-0144 FAX 064)753-0145
동제주 지점	TEL 064)755-0500, 8411~2 TEL 064)721-2355 (경제사업장)	FAX 064)755-8413 FAX 064)721-2335
한림한경 지점	TEL 064)796-2476, 4114, 2415	FAX 064)796-0425
애월 지점	TEL 064)799-1351, 6556	FAX 064)799-2489
조천 지점	TEL 064)784-2173, 783-6208 TEL 064)782-6208	FAX 064)784-1511
남원 지점	TEL 064)764-0113, 2537, 5123 TEL 064)764-1134 (직영 선과장)	FAX 064)764-4033
안덕 지점	TEL 064)794-9108, 6108 TEL 064)792-0623	FAX 064)794-9579
성산 지점	TEL 064)782-2278 TEL 064)783-1140	FAX 064)784-0953
위미 지점	TEL 064)764-1103~4 TEL 064)738-7634 (구판장)	FAX 064)764-6105
표선 지점	TEL 064)787-2967, 4967	FAX 064)787-2961
대정 지점	TEL 064)794-6780~1 TEL 064)794-6782 (구판장)	FAX 064)794-3190
서제주 지점	TEL 064)748-5011~3	FAX 064)748-5014
연동 지점	TEL 064)751-0214~5	FAX 064)751-0216
노연로 지점	TEL 064)747-0170~2	FAX 064)747-0173
동문로 지점	TEL 064)763-9871~2	FAX 064)763-9876
청사로 지점	TEL 064)725-7870~1	FAX 064)725-7873
무역 사업소	TEL 064)725-5003~4	FAX 064)725~5062
(주)감귤농협 개발	TEL 064)738-5401~2	FAX 064)738-5403

사 무 소	전 화 번 호	
동부유통사업소	TEL 064-764-0145	FAX 064-764-0146
제2유통센터	TEL 064-764-8600	FAX 064-764-8607
제5유통센터	TEL 064-782-6246	FAX 064-782-6248
제9유통센터	TEL 064-787-8835	FAX 064-787-8836
중부유통사업소	TEL 064-732-6077	FAX 064-732-6090
제1유통센터	TEL 064-732-6077	FAX 064-732-6090
제8유통센터	TEL 064-724-9907	FAX 064-724-9903
서부유통사업소	TEL 064-739-9445	FAX 064-739-9448
제3유통센터	TEL 064-739-6781	FAX 064-739-6784
제4유통센터	TEL 064-799-1508	FAX 064-799-1510
제7유통센터	TEL 064-772-1288	FAX 064-772-1289



감귤원예 원고 모집안내

제주감귤농협에서는 조합원 중심, 현장사례 중심의 〈감귤원예〉지를 만들고자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감귤농협 본점 영농지도팀 또는 가까운 감귤농협 지점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CITRUS HORTICULTURE

등 록 번 호 : 제주마 1001호
등 록 : 1980년 2월 11일 <통권 290호>
발행 · 편집인 : 송 창 구
인 쇄 : 2024년 12월 27일
발 행 일 : 2025년 1월 3일
발 행 처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8
TEL (064)739-5401~2, 5404
FAX (064)739-5406, 5440
홈 페 이 지 : www.citrusjeju.nonghyup.com
디자인 · 인쇄 : (주)천제출판인쇄
TEL (064)724-7981
FAX (064)711-8706